

영덕옛이야기모음집

# 동고동락

# 영덕옛이야기모음집 동고동락

영덕 옛이야기 모음집 <동고동락>은 영덕군 9개 읍면의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영덕의 역사, 설화, 어르신들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동화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관광해설사와 함께 두 달간 채록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동화작가님의 손을 거쳐 10개의 동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영덕군 가족센터에서 영덕 어린이들과 함께 동화책의 삽화 그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영덕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만드는 동화책을 완성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옛이야기를 나누면서 활짝 웃으시던 활기, 아이들이 동화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옛 세대를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노력, 사라져가는 영덕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모두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영덕 옛이야기 모음집을 통해 영덕의 고유 문화가 보존되고, 또 발전되길 바랍니다.

영덕 옛이야기 모음집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마을 어르신분들, 어린이들, 영덕 주민 여행사 맑음 관광해설사, 최정연 작가님, 박재은 작가님, 영덕군 가족센터,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영덕군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 일동

## 차례

달빛이 곱고 곱게 (강구면 삼사리)	5
나무가 듣는 이야기 (남정면 부경2리)	17
할머니의 노래 (달산면 학구마을)	33
가마니 부자 (병곡면 원황2리)	45
무릉산 전설 (영덕읍 천전리)	55
칼국수를 먹는 여름밤 (영해면 연평2리)	65
길현이와 영오 (지품면 신안리)	73
호랑이 신랑 (창수면 오촌1리)	83
세 친구 (축산면 도곡1리)	93
우리 엄마는요 (다문화가정)	101

## 부록

마을별 채록된 이야기	110
간담회 사진	120
이야기 제공 어르신	121
삽화 그리기 활동 후기	122
도움주신 분들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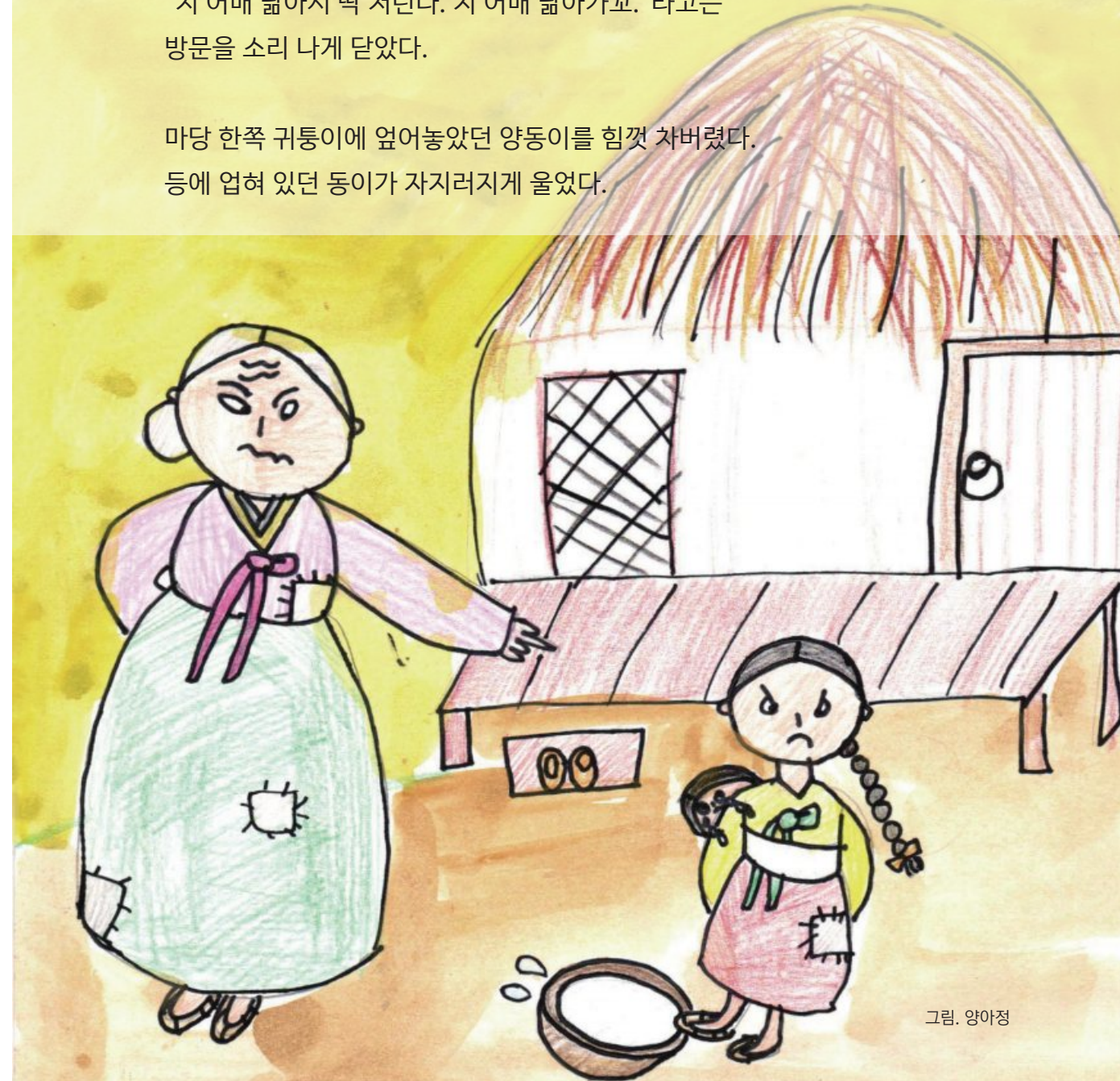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강구면 삼사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해도 한 집에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들까지 함께 살았다고 해요. 위로 모셔야 할 어른들이 총총이 있어 ‘총총시하’라고 한대요. 그래도 시부모도 부모라고 생각해서 입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히 모셔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 “우리 어매가 와 빙신인교. 와?”

나는 할머니한테 बारकबारक 대들었다.  
할머니가 날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며  
“지 어매 닳아서 딱 저런다. 지 어매 닳아가꼬.”라고는  
방문을 소리 나게 달았다.

마당 한쪽 귀퉁이에 얹어놓았던 양동이를 힘껏 차버렸다.  
등에 업혀 있던 동이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나는 업고 있던 동이를 데리고 마당을 나와 논두렁을 걸었다.  
늦은 오후 햇살에 눈이 부셔 눈물이 질금 났다.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다.  
그냥 햇살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다.  
'우리 어매한테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우리 어매한테. 할머니고 뭐고 없다.'  
나는 옷소매로 눈가를 스윽 훔치고는  
속으로 수십 번을 더 되뇌었다.

어매는 논두렁 옆에 앉아 거머리를 떼어내고 있었다.  
“장화 신이라 쟈제. 장화. 어매 그라다가 큰일 난다고 했나, 안 했나.”  
내 말에 어매는 힘없이 웃으며 동이를 내려달라고 했다.  
“우리 동이, 배 많이 고팠제. 언니야가 업어주니까 좋제?”  
어매는 윗저고리를 올려 동이에게 젖을 물렸다.  
잠든 줄 알았던 동이는 어매 젖꼭지를 용케도 물고 힘껏 빨았다.  
어매는 그런 동이를 지그시 내려다보고는 동이 콧잔등에 올라온 땀을 손등으로 닦았다.

“밥은 묵었나?”  
어매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화가 스멀스멀 났다.  
“어매는! 어매는 밥은 묵고 일하나?”  
“이것만 해놓고 집에 가서 묵을 기다.”  
그새 동이가 젖을 물고 잠들었다.  
나는 잠든 동이를 다시 업고 포대기 끈을 단단히 앞으로 묶었다.  
어매는 옷자락을 대충 내리고는 낮을 챙겨들었다.  
“언제? 어떻게!”  
집에 가든 고모야랑 할매 밥 차리고 어매는 언제 묵을 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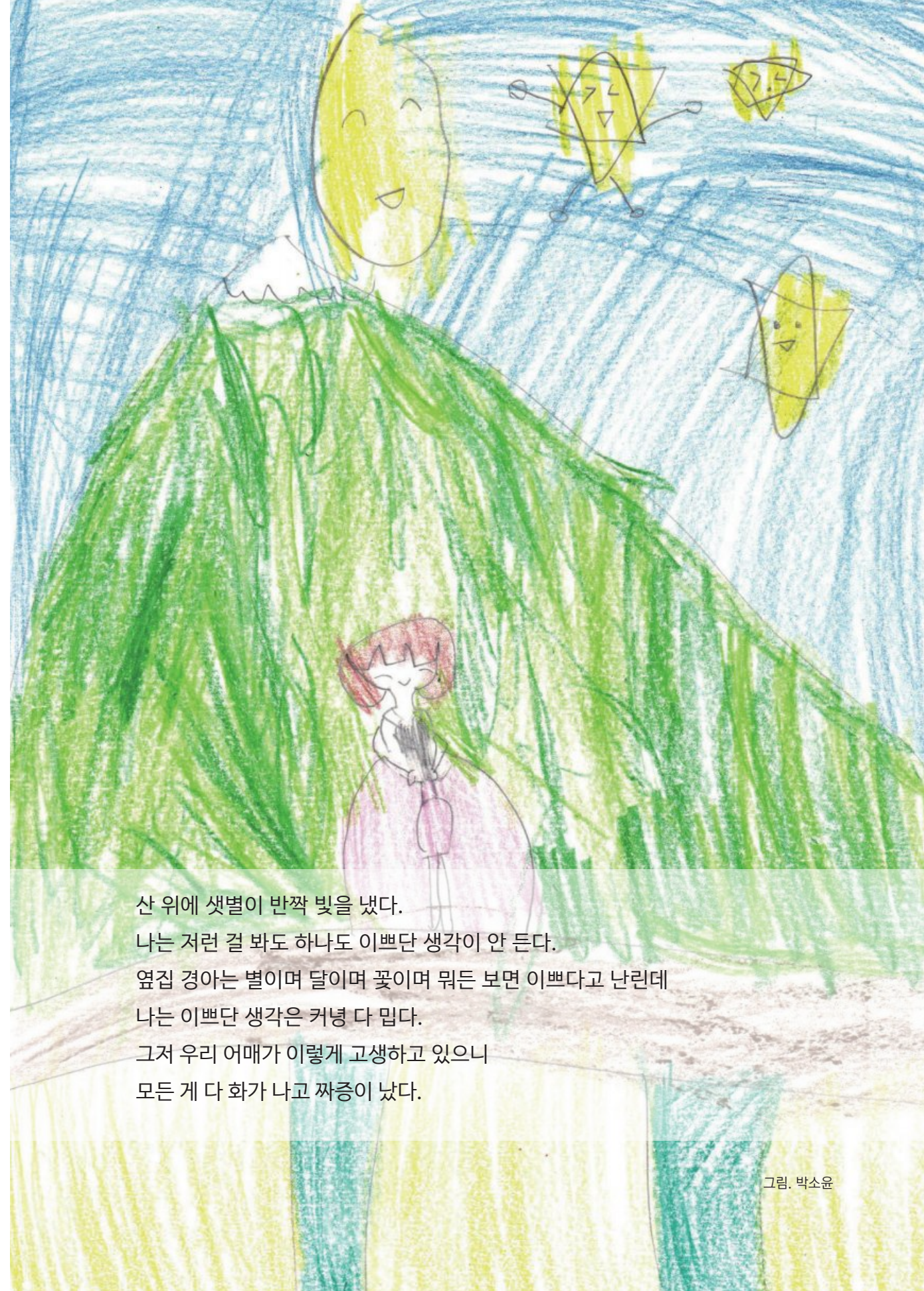
우에 목을 낀데!”  
“순이야. 니 와 그래 뽀이 났노?”  
어매는 속도 없다.  
왜 화도 한 번 안 내는 줄 모르겠다.  
나는 더 화를 내려다 말아버렸다.  
이런 어매한테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다.  
그저 내 마음만 아플 뿐이었다.

“집에 가서 칼국수 해줄게.”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논두렁을 걸으며 어매의 손을 잡았다.  
두껍고 까슬한 어매 손을 쥐자 마음이 따끔거렸다.

“어매는 와 아버지한테 시집와서 이래 고생만 하노.”  
어매는 또다시 배식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요래 이쁜 딸내미 가질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매 때문에  
나는 아버지도 밍고 할매는 더더 밍고 고모야들도 다 밍다.

“내 말고. 아버지 말이다. 아버지가 그래 좋나.”  
“좋아서 했나, 그냥 하라고 하니 결혼했지.”  
어매는 목에 두른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산 너머를 바라보았다.

“어매는 할매가 안 밍나?  
어매한테 맨날천날 빙신이라고 하고 힘든 것만 시키고.”  
“순이야. 내한테는 시어머니도 우리 친정어머니랑 똑같은 어머니다.  
그라고 아들 귀한 집에 와서 딸만 낳으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가 안카나.”



산 위에 샨별이 반짝 빛을 냈다.  
나는 저런 걸 봐도 하나도 이쁘단 생각이 안 든다.  
옆집 경아는 별이며 달이며 꽃이며 뭐든 보면 이쁘다고 난린데  
나는 이쁘단 생각은 커녕 다 밍다.  
그저 우리 어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모든 게 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

“딸만 낳은 게 어매 탓이가.  
 그라고 딸이 뭐 어때서? 와 빙신 소릴 들어야 하는데.”  
 어매는 또 배시시 웃으며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리 딸, 순이 참말 똑똑하네.  
 우리 딸은 공부 많이 많이 해서 좋은 데로 훌훌 떠나라.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먹어라.  
 알았제?”

어매는 동이를 달라며 포대기 끈을 풀었다.  
 어매가 힘든 건 알지만, 나도 종일 동이를 업고 있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서 그만 어매가 하는 대로 가만 있었다.  
 어매는 동이를 포대기로 잘 업고 길을 투벅투벅 걸었다.  
 가만히 보니 어매의 신발이 너덜거렸다.

“어매, 내가 진짜로 돈 많이 벌어가 어매한테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좋은 것만 입혀주고 좋은 것만 먹게 해줄게. 그라니까.”  
 나도 빙신인가 보다. 거기까지 말했는데 목이 메었다.  
 “우리 순이. 똑똑한 데다 효녀네.  
 어매는 우리 순이만 있으면 무서울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다.”  
 나는 어매의 품에 안겼다.  
 어매의 땀 냄새가 포근히 콧속으로 들어왔다.

열세 살 나는 할매한테는 천덕꾸러기다.  
 큰 딸이라 고분고분할 줄 알았다고 할매가 늘상 말하지만,  
 내 밑으로 여동생만 내리 셋을 낳은 어매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 할매를 보면 고분고분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어매는 더 할매한테 들들 볶일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힘이 돼주질 않는다.  
 할매가 어매한테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묵묵히 있다 방으로 들어갈 뿐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도 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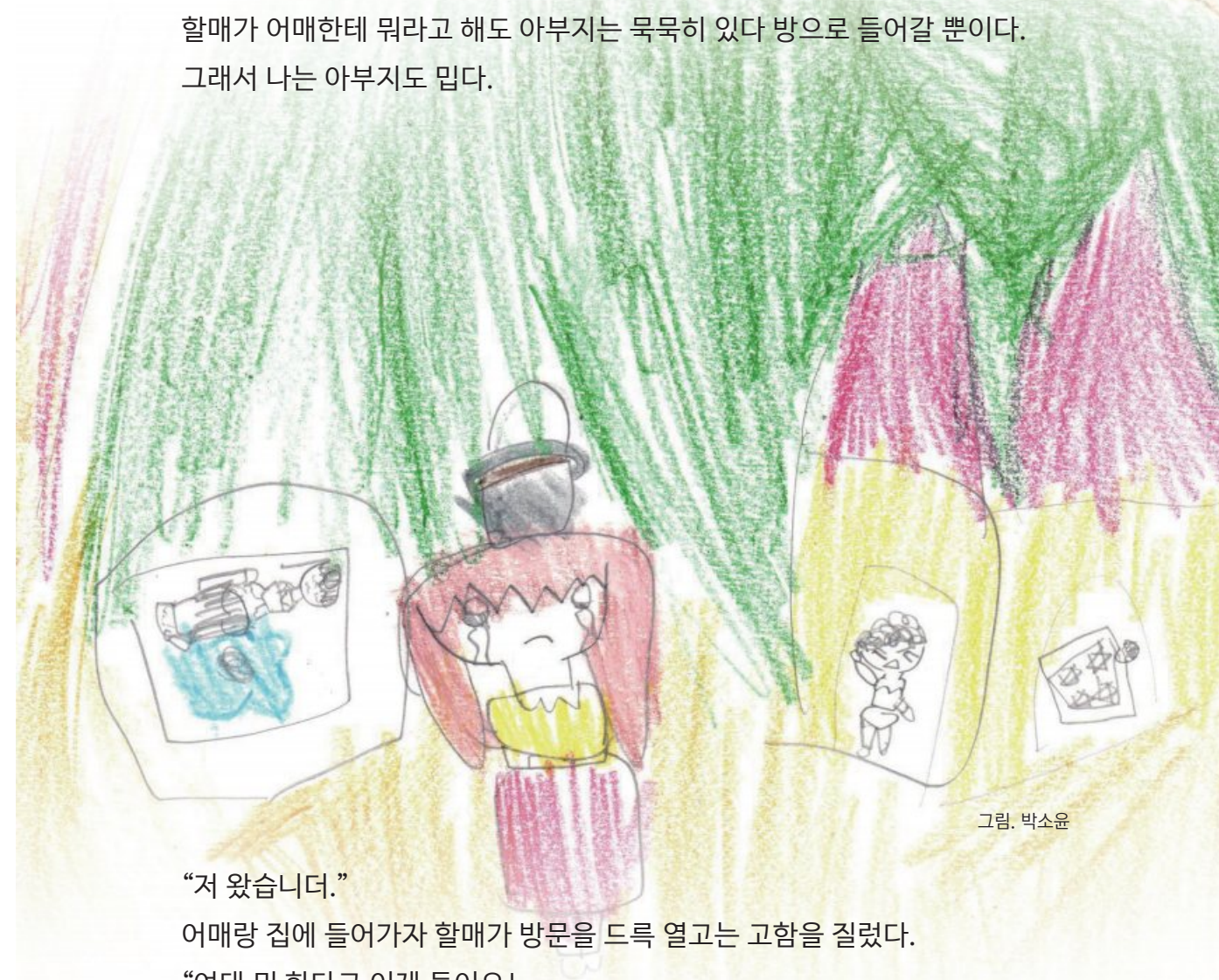


그림. 박소윤

“저 왔습니더.”  
 어매랑 집에 들어가자 할매가 방문을 드룩 열고는 고함을 질렀다.  
 “여태 뭐 한다고 이제 들어오노.  
 니는 니 서방이랑 시어머니는 안 보이나?”  
 어매는 얼른 동이를 방에 눕히고 부엌으로 달려 나갔다.  
 나는 동생 덕자랑 금실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다.  
 손을 씻기고 발을 씻기자 덕자랑 금실이는 금세 물장난질이다.

그때 어매가 물동이를 들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 모습을 보고 할매가 어매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저거, 저거는 종일 놀다가 꼭 저녁밥 할 때 돼서야 우물 길러 간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할매를 확 노려보았다.  
그러자 할매가 콩, 하더니 문을 소리 나게 닫았다.  
덕자랑 금실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오자 밖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다녀오셨어요.”  
내가 얼른 일어나자 덕자와 금실이도 따라 일어나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찾는 듯 방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나는 어매 걱정이 되었다.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또 집까지 오려면 한참 걸린다.  
얼른 신발을 신고 우물가로 달렸다.

초승달이 검은 하늘에 알뜰하게 꼭 박혀 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어슴푸레 길 끝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길고 검은 모습 두 개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얼른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옆집 경아가 얼마 전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그림. 양아정



계집아이만 잡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겁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무 뒤에 쪼그리고 앉아 꼼짝도 않고  
길고 검은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매와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오른손엔 물양동이 들려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왼손으로 어매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달빛이 곱고 곱게  
아버지와 어매를 비춰 주었다.**

그림자 둘이  
귀하고 귀하게 내 마음을 흔들며 걸었다.

그림. 양아정

# 나무가 듣는 이야기

남정면 부경2리



이 이야기는 남정면 부경2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1950년, 6.25전쟁 중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된 군인은 대부분 학도병이었습니다. 한 달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훈련 받고 바로 배를 타고 싸우러 나갔다고 해요.

전쟁 당시 바다에는 남한군, 산에는 북한군이 있었는데, 북한군이 밤마다 마을로 내려와 모든 살림살이를 가져갔다고 해요. 바다에서는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마을을 향해 포를 쏘니까, 마을 사람들은 산골짜기로 피난가서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나무입니다.

## 어떤 나무냐고요?

글쎄요.

마을 아이들은 저를 보고  
“안녕?”이라고 부르고  
마을 어른들은 저를 보고  
“잘 있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뭐가 중요한가요.

마을 사람들은 가끔 제 옆에 와 잠깐 눈을 감고 있거나  
때때로 제 곁에서 흥얼거리고  
언젠가는 제게 기대어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 윤재성

아, 저 할머니처럼요.  
저기 저 할머니.

**보이시죠?**





그림. 이지예

맞다.

할머니는 말을 잘 못 들으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말은 잘 알아들으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말은 잘 못 들으시죠.

바로 저렇게요.

“할머니, 어디 가시나 봐요?”

은택이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할머니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은택이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은택이 어매가. 난 밥 묵었다.”라고요.

그러자 다시 은택이 어머니가 쥐고 있던 빨래를 소쿠리에 넣어두고 할머니 가까이에서 와서 다시 물으십니다.

“마실 가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은택이 어머니의 팔을 쓸어내리며 말씀하시죠.

“그래, 니가 준 여름김치랑 해서 밥 잘 묵었다.

은택이는 서울서 학교 잘 댕기제?”라고요.

저것 보세요.

은택이 엄마가 저렇게 바로 앞에서 말해도 잘 못 알아들으신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진다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잘 못 듣고 잘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젊었을 때는

너무 잘 보여서 울 일도 많았고

너무 잘 들려서 속상한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할머니가요.

할머니는 오늘도 버스정류소에 오시나 봐요.  
저기 동식이네 집을 지나고  
골목을 돌아서 은지슈퍼를 지나면  
마을 앞 버스정류소에 올 수 있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만날 수 있답니다.

저는 마을 버스정류소 바로 옆에 서 있는 나무거든요.  
저는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100년쯤 살았으니까요.  
저 다음이 할머니고요.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정류소에 오신답니다.

## 왜냐고요?

그건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면  
알게 된답니다.



“아이고, 다리야.”  
‘할머니, 어서 거기 의자에 앉으세요.  
좀 전에 바람이 와서  
제가 할머니 금방 올 거라고 의자 좀 닦아놓으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제 말을 금방 알아들으셨는지 지팡이를 세워놓고 의자에 앉았답니다.

어, 저기 버스가 들어오네요.  
동식이랑 은지가 타고 있을걸요?  
학교 마치는 시간이거든요.  
보세요. 동식이랑 은지가 같이 내려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지는 늘 씩씩하게 인사하죠.

“아, 은지가? 학교는 잘 다녀왔나?”

“네. 할머니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은지가 할머니에게 알사탕을 건네네요.

역시 은지는 참 착해요.

동식이요? 동식은 동식이 엄마 말대로 사춘기가 되어서인지

통 말이 없어요.

“고맙다.”

할머니는 은지가 건넨 알사탕을 입에 물고는 동식에게 묻습니다.

“동식도 학교 잘 다녀왔나?”

그런데 동식은 할머니가 뭘 물어도 아무 소리도 않고 땅만 뚫니다.

“뭘해? 할머니가 물어보시잖아.”

역시 은지에요.

하지만 은지도 참을성이 많은 건 아닌가 봐요.

동식이 우물쭈물하며 들리지도 않게 대답하자

동식이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걸 보면요.

“동식도 잘 다녀왔어요. 그럼 저희 가볼게요.”

은지 말이 끝나자마자 동식이 획 돌아가네요.

빨리 동식의 사춘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야, 동식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저 때는 다 그렇다. 우리 오빠야도 그랬다.”



그림. 이지예

할머니는 참 신기하죠?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하지만, 말 안 듣는 녀석들은 콩 쥐어박고 싶다니까요.’

제 말을 들으셨는지 할머니는 한숨을 끄 쉬고

제 기동을 가만가만 풀어주시네요.

## “여태 살고 있으니까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는 또 옛날 생각을 하시나 봐요.

할머니는 요즘처럼 매미가 뜨겁게 울면

70년 전 먼저 떠나보낸 할머니의 오빠를 생각하신답니다.

저도 그해 여름은 잊을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마을 사람들 모두 산으로 숨었어요.

한동안 마을에 북한군이 내려와서 빈집에 들어가 먹을 거며 입을 거며

마음대로 가지고 가고 마을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겨우 집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도 밤마다 내려오는 북한군을 피해

다시 도망을 갔죠.

할머니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였답니다.



그러는 사이 할머니 집에서 큰일이 났어요.

할머니의 어린 오빠가 학도병<sup>1</sup>으로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안 된다. 나는 우리 집 장손이다. 어딜 가겠다고 그라노.”

할머니의 어머니는 대문을 가로막고 아들을 막아섰죠.

**“오빠야,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아빠도 돌아가시고 오빠야까지…….  
안 된다, 못 간다.”**

어린 할머니도 오빠의 허리춤에 매달려 울먹였답니다.

하지만 통 자신의 속내를 안 드러내던 오빠는 그때만큼은 막무가내였어요.

“제가 가야 해요, 어머니.”

할머니의 어린 오빠는 자신의 친구들도 그랬고,

마을 어른들도 그랬듯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했죠.

어머니의 말도 어린 여동생의 말도 듣지 않았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는 쓰러질 듯 마당에 주저앉아 아들을 끝끝내 보내고 말았답니다.

“만약에 나무야, 내가 말이다,

오빠야를 끝까지 잡았으면 오빠야가 죽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할머니는 옷소매로 눈가를 닦으며 먼 데를 바라보았죠.

<sup>1</sup> 학도병 :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한 병사

저는 가지를 흔들어 잎을 떨어뜨렸어요.

푸른 잎 두어 장이  
할머니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살포시 떨어졌어요.

“오야, 오야. 안 울 게.  
우는 게 다 무슨 소용이고.  
오야, 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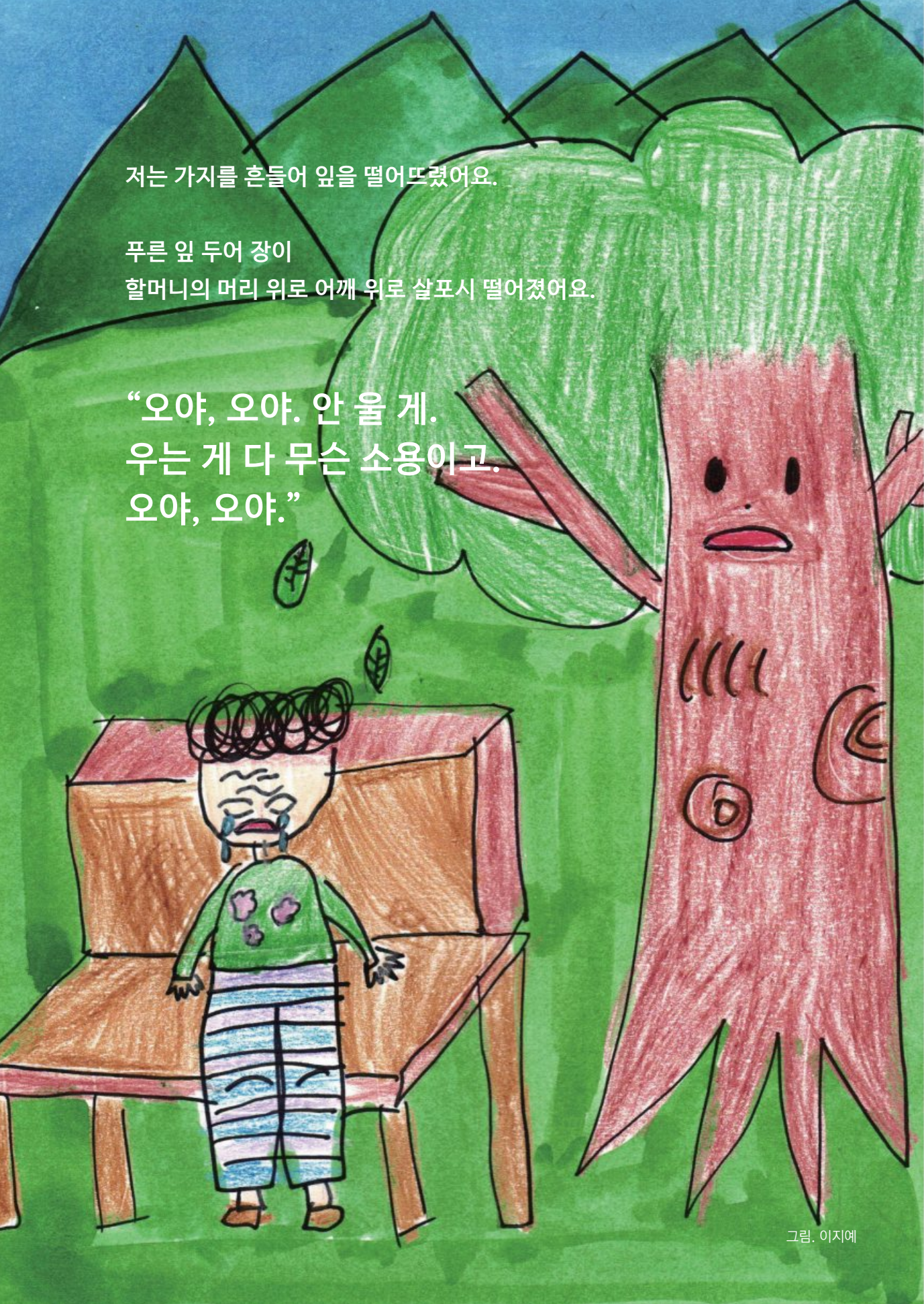


그림. 이지예

저는 할머니의 어린 오빠가 떠난 그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만약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제가 만약 소리칠 수만 있다면 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다치고 죽는 걸 보고만 있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더욱 괴로웠어요.

아마, 할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버스가 다시 들어오네요.

성배씨가 일을 마치고 저 버스에 타고 있을 거예요.

“할매요, 더운 데 왜 또 나와 계세요.”

그는 버스에서 내려 할머니가 앉아 있던 의자에 같이 앉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래 앉아 있으면 꼭 아버지랑 오빠야가 저 버스를 타고 올 것 같다.”

할머니 말에 성배씨가 할머니의 어깨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언젠가 저 버스 타고 꼭 오겠죠. 우리 어머니랑 같이요.”

그래요.

성배씨의 어머니도 전쟁 때 돌아가셨답니다.

산에서 몸을 피해 있다가 먹지를 못하니 젖이 나오질 않아,

갓난쟁이 성배가 죽게 생겼다며

마을로 내려와 먹을 것 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북한군에게 들켜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성배씨 2살 때였다고 합니다.

“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성배씨의 손등을 쓸어주며 말하셨습니다.

“성배 니 잘못이 아니다. 내 같았어도 그랬을 기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당연히 어매가 그랄 수밖에 없지 않나.”

성배씨는 할머니를 부축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해가 너울너울 지고 있네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겐 하나씩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마을 사람들 서로가 가만가만 쓸어주고 안아주고 있어요.

저도요,

늘 이곳에서

변함없이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아픈 이야기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빠짐없이 바라보려고 해요.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요.**

# 할머니의 노래

달산면 학구마을



그림. 이지현



이 이야기는 달산면 학구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6.25 전쟁 때 온 동네가 다 타버려 솔만 남아있었다고 해요. 밥을 하면 연기가 나서 공격을 당하니까 밥을 해 먹지도 못하고 비상식량으로 밀과 콩을 볶아서 들고 다녔다고 해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를 만나러 왔어.

차를 타면 난 꼭 잠이 드는데,  
그렇게 한참을 자고 나면  
할머니 집에 왔다고 엄마가 날 깨워.

나는 차가 멈추자마자 차 문을 열고  
할머니 집으로 뛰어 들어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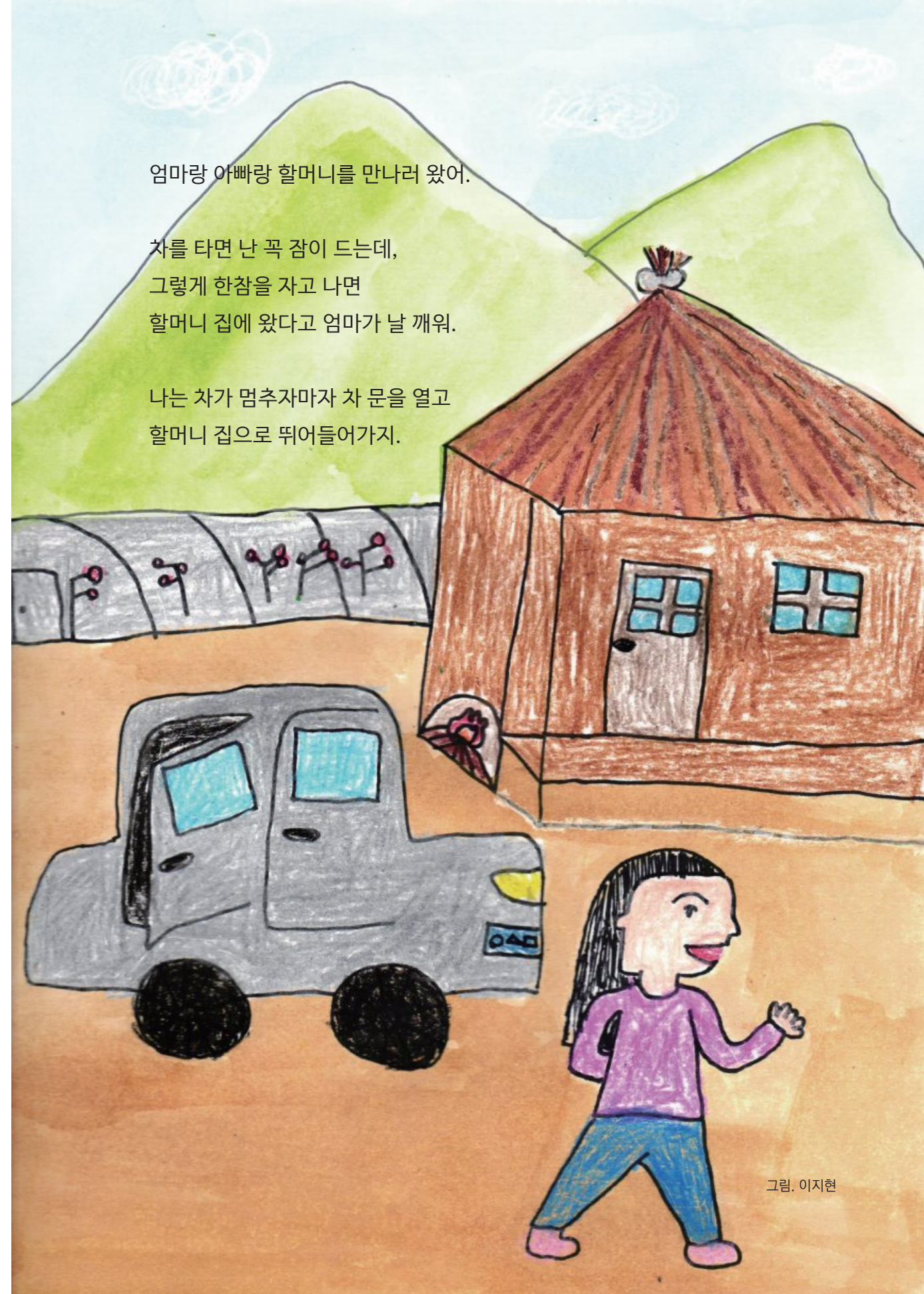


그림. 이지현

할머니는 내가 오는 줄 어떻게 알고  
벌써부터 마루에 걸터앉아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할머니” 하고 부르면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끄, 하고 펴고는 댕돌<sup>1</sup>을 내려와

## “우리 똥강아지 우리 똥강이지”

하며 날 꼭 안아주셨어.



그림. 임재민

1 댕돌 : 높이가 높은 집 바깥에서 안쪽으로 오를 수 있게 놓은 돌.



그림. 이지현

나는 할머니한테서 나는 냄새가 참 좋아.

그 냄새는 말이지,  
엄마랑 아빠한테서는 말할 수 없는 냄새야.

## 할머니 방은 요술 궁전이야.

그 방에는 오래된 것들이 참 많은데,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자꾸자꾸 나와.



내가 **“할머니, 이걸 처음 보는 거야.”**

하면 할머니는 내게 그걸 주고는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라며 가만히 내가 노는 걸 지켜보지.

엄마랑 아빠는 절대 그러지 않지.  
그렇게 한참 할머니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내가 **“할머니 등 가려워요.”** 하면

할머니는 내 옷을 쓰윽 올리고  
그 손바닥으로 쓰윽 쓰윽 등을 쓸어주시지.  
할머니의 까슬까슬하고 두꺼운 그 손바닥이 참 좋아.  
엄마랑 아빠의 손바닥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한참 할머니 손이 내 등을 구석구석 쓸어내면  
나는 어느새 배가 고파져

**“배고파요, 할머니.”** 하면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꿍, 하고 펴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동그란 쇠 밥그릇에 흰 밥을 푸고,  
까만 간장을 조금 붓고, 참기름을 더 조금 붓고,  
달걀을 탁 깨서 노른자만 그 밥그릇에 올려 싹싹 비비지.

나는 부엌 문지방에 쪼그리고 앉아 그걸 가만 보고 있어.  
할머니가 부리는 맛있는 마법 같아.  
침이 꿀꺽 넘어가면 할머니는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우리 똥강아지,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나?”**

하고 물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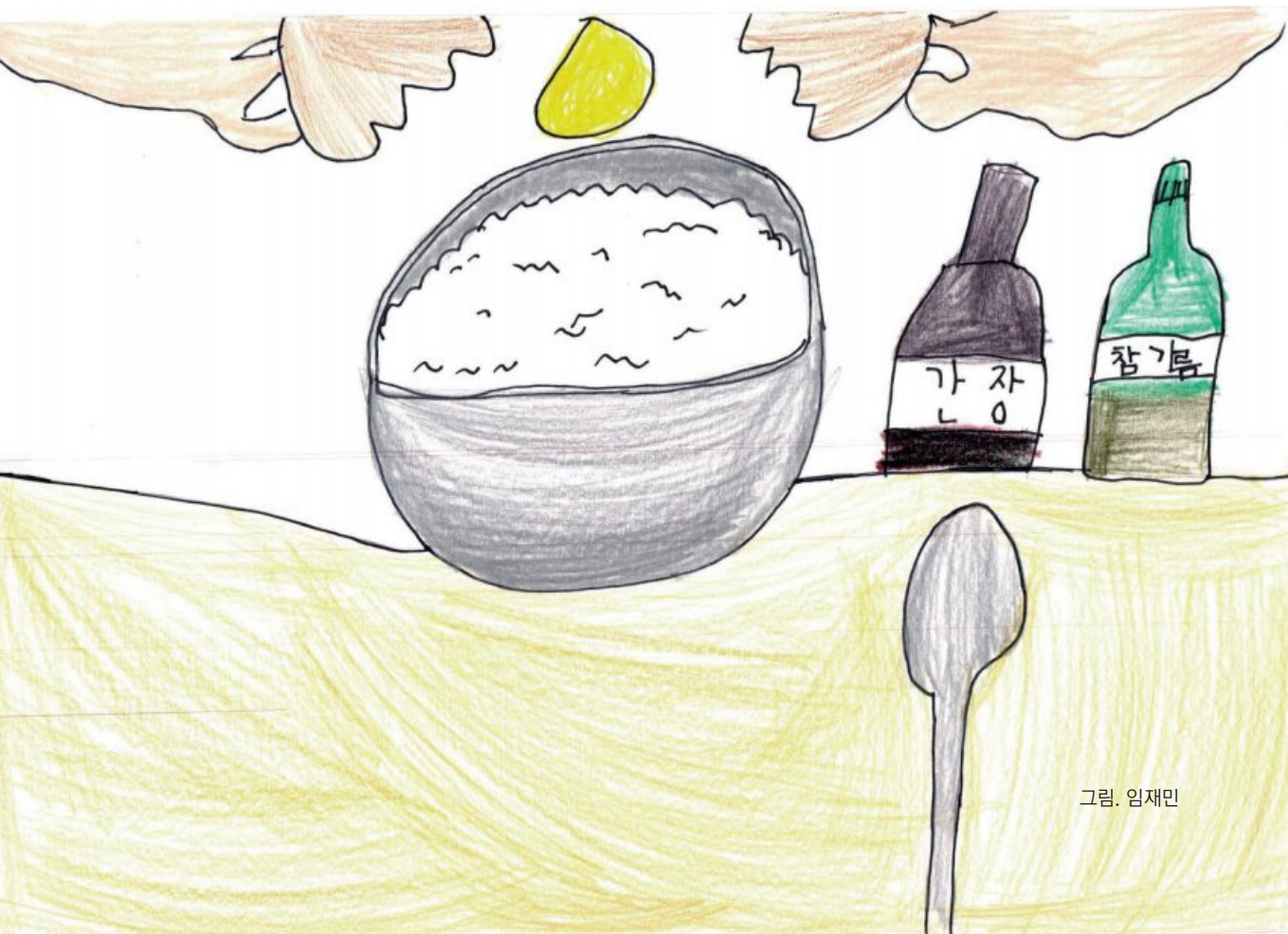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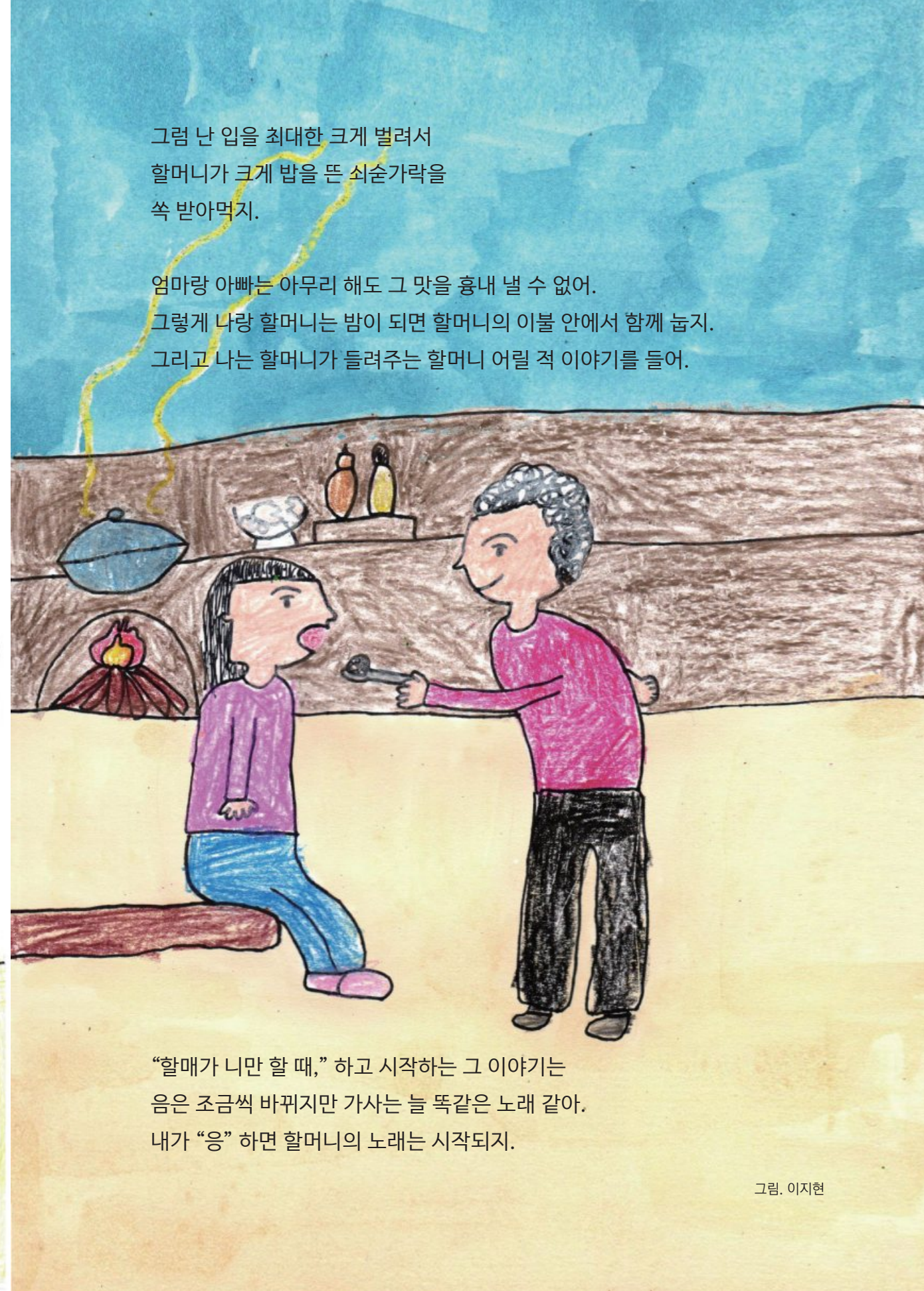


그림. 임재민

그럼 난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할머니가 크게 밥을 뜯 쇠손가락을  
쏙 받아먹지.

엄마랑 아빠는 아무리 해도 그 맛을 흉내 낼 수 없어.  
그렇게 나랑 할머니는 밤이 되면 할머니의 이불 안에서 함께 눕지.  
그리고 나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할머니 어릴 적 이야기를 들어.



“할매가 니만 할 때,” 하고 시작하는 그 이야기는  
음은 조금씩 바뀌지만 가사는 늘 똑같은 노래 같아.  
내가 “응” 하면 할머니의 노래는 시작되지.

그림. 이지현

“피난 갔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니 동네가 시커멓게 다 타서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마음도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것 같더라.



그림. 이지현

집에 오니까 이불이고 가재도구<sup>2</sup>고 뭐고 다 타서 솔 하나 달랑 남아있는기라.  
그거 들고 냇가에 가서 박박 씻었지.  
동생들이랑 밥해 먹을라고. 그런데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걸 암만 찾아봐도 보리 한 톨 없더라.  
거기다 낮에는 비행기가 날아댕기니까 무서워서 돌아댕기지도 못하고 빨갱  
이<sup>3</sup>가 온다고 해서 무서워서 숨어 댕겼다.  
그런데 연아, 그 빨갱이가 할매는 진짜로 빨간 사람인 줄 알았다.”

나는 다시 “응” 하고 할머니의 노래에 나오는 빨간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봐.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싫어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지.

## 그러면 할머니의 노래는 다시 시작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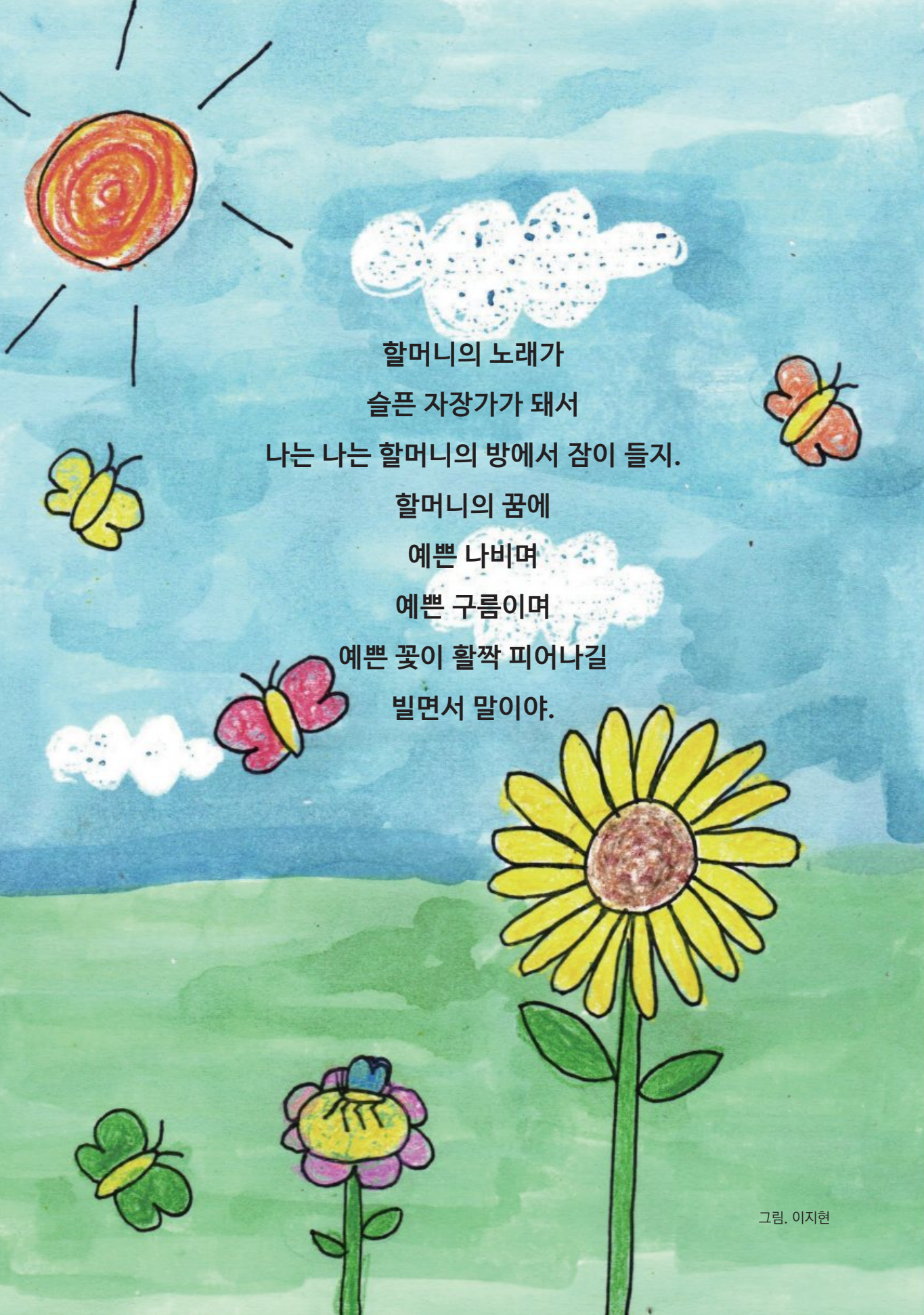
“밥 지어먹으면 연기가 나서 공격당하니까 밀이랑 콩 볶아서 비상식량으로  
정말 배가 고플 때만 조금씩 먹었지. 그때는 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연아, 그랬다. 연아, 그랬어.”

내가 “응” 하면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고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었어.



그림. 임재민

- 2 가재도구 : 집안 살림에 쓰는 여러 물건.
- 3 빨갱이 :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할머니의 노래가  
슬픈 자장가가 돼서  
나는 나는 할머니의 방에서 잠이 들지.  
할머니의 꿈에  
예쁜 나비며  
예쁜 구름이며  
예쁜 꽃이 활짝 피어나길  
빌면서 말아야.

그림. 이지현

# 가마니 부자

병곡면 원황2리



이 이야기는 병곡면 원황2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원황2리는 벼농사를 하고 나온 짚으로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서 팔았다고 해요. 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에는 학교를 가기 위해 새벽부터 나가고, 집에 돌아오면 새끼를 꼬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 “들어가서 자라.”

엄마의 말에 눈을 번쩍 떴다.  
또 졸았나 보다.

“그래, 혁아. 들어가서 자라.”

가마니를 정면에 앉아서 있던 할머니도 날 보고 어서 들어가라고 했다.  
나는 방 한구석에 놓인 가마니를 눈으로 세어보았다.

## 하나, 둘, 셋, 넷.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이제 겨우 4장이다.  
‘오늘 밤 꼰딱 새면 7장은 만들 수 있을텐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앞이 핑글 돌았다.

“세수하고 올게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보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 갔다가 오자마자  
방에 들어와 새끼를 꼬았으니  
저녁 먹으러 간 것,  
변소 가는 것 말고는  
5시간은 앉아 있었던 거다.



그림. 양준혁



“들어가서 자라고 해도.”

방을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한 소리 하신다.

나는 못 들은 척하고 방문을 닫았다.

마루에 서자 찬바람에 몸이 바르르 떨렸다.

마당에 내려와 기지개를 쭉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밤하늘에 별들이 쌀겨를 뿌려놓은 것 같았다.

“애미야, 혁이 자, 뭘 일 있나?”

“뭘 일은요. 지도 해 바뀌면 열세 살이니까 집안일 돕는 거지예.”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팽개치고 도망가기 바쁜 녀석이 꿈쩍도 안 하고 몇 날을 새끼를 끈다고 앉았으니, 걱정도 되고…….”

문 안에서 새어 나오던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가 똑 끊어졌다.

할아버지가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온 마을 사람들은

겨울 동안 가마니를 짜고 새끼를 꼬았다.

나는 그 일이 정말 싫었다. 그래서 겨울이 오는 건 더더욱 싫었다.

그런 내가 새끼도 꼬고 벗짚 준비도 알아서 도와드리니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세 분이 걱정할 만하다.

우물가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뜨자 물 위로 조각달이 담겼다.

‘아버지도 이 달을 보고 계실까.’

아버지 얼굴이 어른거리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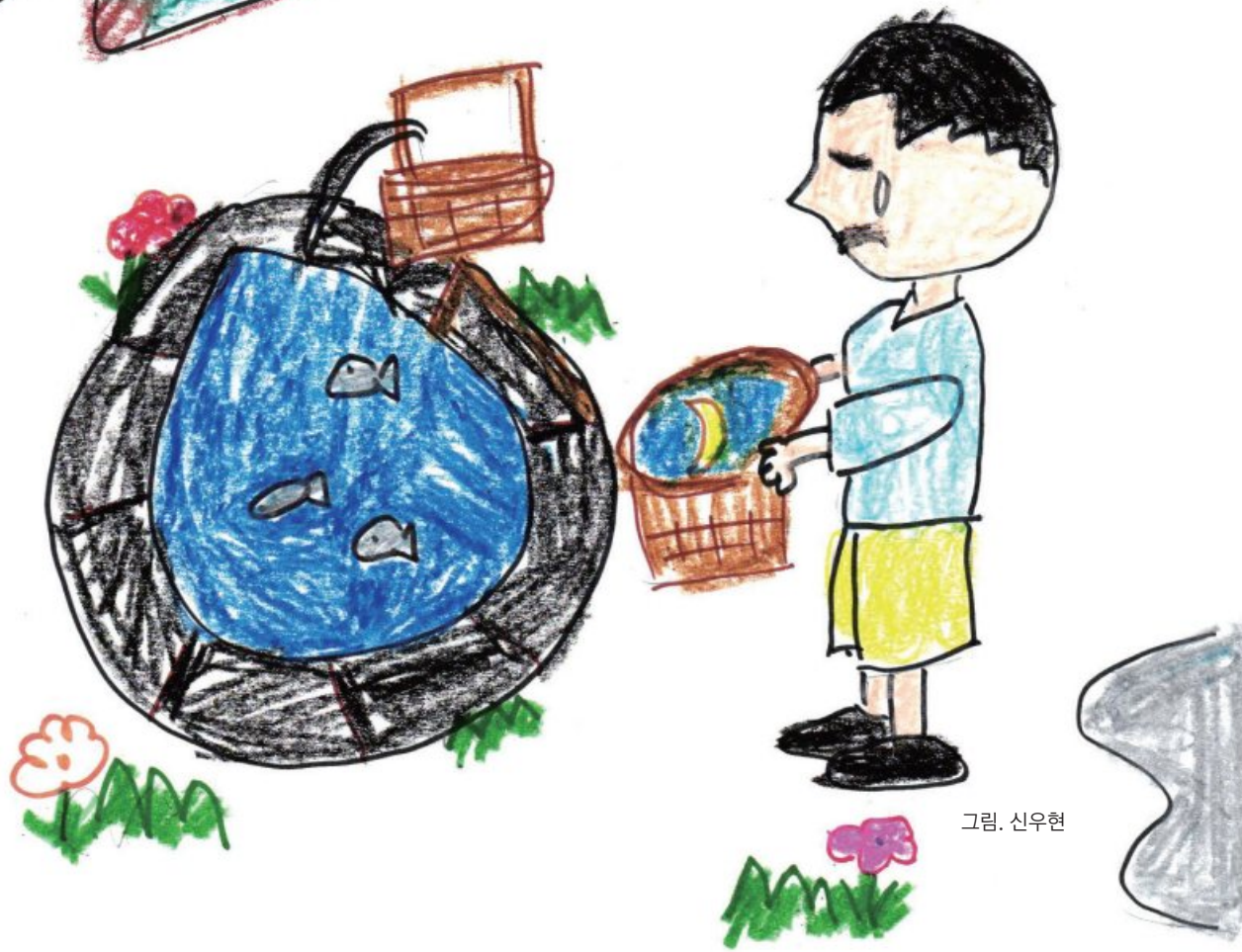


그림. 신우현

지난주 목요일 아침이었다.

학교 가려고 마루에 걸터앉아 신을 신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날 부르셨다.

“혁아, 잠깐 들어와 보라.”

안방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아버지의 두꺼운 겨울옷 몇 벌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

내가 주춤대며 방에 서 있자 아버지는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나는 엉거주춤 앉으며 아버지께 물었다.

“어디 가시는데요, 아버지?”

“예서는 겨울에 따로 일거리가 없으니까. 좀 큰 곳으로 가볼라고 한다.”

“가마니 짜는 거는…….”

아버지는 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말씀을 이었다.

“이제 혁이 니도 열두 살이니까 충분히 내 뉘만큼 할 거다. 동생들 잘 건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엄마 힘들지 않게 잘 거들어라.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는 니가 이 집 가장이다. 내 말 알아듣제?”

아버지 말씀이 커다란 돌덩어리처럼 가슴에 들어앉았다.

장남이라고, 맏형이라고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내게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은 별로 와닿질 않았다.

아버지가 든든하게 우리 걸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우신다고 생각하자 앞이 막막했다.

엄마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시길 바랐다.

‘혁이 겨우 열두 살인데요. 자가 뭘 안다고. 혁이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더.’

뭘 이런 말을 기대했다.

하지만 엄마는

“혁이가 잘할 거니까 걱정 말고예, 당신 몸이나 챙기고 언능 돌아오소.”

라며 가방에 더 넣을 자리가 없는데도 이것저것 꼭꼭 눌러 넣었다.



그림. 양준혁



그림. 양준혁

“혁아, 안 출나?”

작은 방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마당에 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들고 있던 물바가지를 꿀꺽꿀꺽 들이켜고 얼른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 열 장만 짜고 잘게요.”

내 말에 할아버지가 꺄꺄 웃으며 대답하셨다.

“밤 꼴딱 새도 열 장은 안 된다 싶은데.”

“됐다, 마. 내일 니 학교는 안 갈끼가.”

그 사이 엄마가 내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저 아랫동네 얘기 들어보니까,

가마니 판 돈으로 논을 샀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내 말에 다시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다.

**“아이구,  
우리 장손 덕에 우리 집 부자 되겠네.”**

“그럼요. 부자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효도할 거예요.”

엄마는 가마니 한 면을 다 짜고 가마니틀 빗장을 뺐다.

그리고 다 짰 앞면을 가마니틀 밑으로 밀어 뒤로 보내고 다시 빗장을 박으며 혁이에게 물었다.

“엄마는? 엄마한테는 효도 안 할끼가? 와 엄마는 빼노?”

손바닥에 침을 딱 묻히고 새끼를 꼬며 아버지처럼 엄마에게 물었다.

“좋다. 뭐 갖고 싶은데, 엄마는? 내 엄마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내 말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엄마가 다 같이 깔깔깔 웃었다.

할아버지가 낄줄<sup>1</sup>을 칼로 자르고 끝을 엮어 마무리하자,  
벌써 가마니 한 장이 똑딱 끝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엄마의 웃음소리에 나는 벌써 부자가 된 것 같았다.

부엉이 우는 소리가 겨울밤을 밝힌다.



그림. 신우현

1 낄줄 : 그물을 짤 때, 세로 방향으로 놓인 실

# 무릉산 전설

영덕읍 천전리



그림. 김다운



이 이야기는 영덕읍 천전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천전리의 북쪽에 위치한 무릉산은 마고할매가 돌아다니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마고할매가 죽인 말의 돌무덤이 무릉산 어딘가에 있다고 해요. 또, 무릉산에는 좋은 묘터가 있는데, 거기에 묘를 만들면 영덕에 가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묘터지만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천전리에서 가뭄이 들면 남자들은 산 인근에서 무제를 지내고, 여자들은 고랑가에 장을 만들어서 강가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만들어 비가 오길 빌었다고 해요.

## “그기 진짜가?”

덕이는 아무래도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 “진짜든 가짜든 그기 중요하나? 나는 무조건 해볼기다.”

훈이는 뒤도 보지 않고 산길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윤씨 할배 말로는 분명

무릉산에서 기우제<sup>1</sup>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올 4월부터 비 소식이 없던 터라 마을 어른들은 모두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뭄으로 곡식이며 작물들이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8월까지 가다가는

훈이네 어머니가 애써 가꾼 과수원 농사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훈이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마음이 미어졌죠.

그래서 윤씨 할배가 기우제 이야길 했을 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덕이가 앞서가던 훈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처음엔 나뭇가지에 걸린 줄 알고 훈이는 씩씩하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훈이야, 내 좀 봐봐라.”

덕이의 말에 훈이는 가쁜 숨을 들이쉬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1 기우제 : 비가 오지 않을 때 비 오기를 빌던 제사

“아, 자속. 되게 빠르네.”

“와?”

머쓱해진 훈이는 덕이의 빨강게 달아오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근데 순이가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와 안 된다고 펄쩍 뛴기고?”

그랬습니다.

훈이가 무릉산에 간다고 하자 순이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훈이는 버럭 순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니 순이 좋아한다 아이가. 근데 와 아까 전에 순이는 안 된다고 한기고.”  
덕이는 콧등에 올라온 땀방울을 손으로 대충 닦고 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윤씨 할배가 기우제 지낼 때 여자는 안 된다고 했거든.”

훈이는 윤씨 할배가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남자는 무릉산에서 무제<sup>2</sup>를 지내면 비가 오고

여자는 고랑가<sup>3</sup>에 장<sup>4</sup>을 만들어놓으면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순이한테 말을 했으면 순이 개도 속은 안 상했을 낀데.”

덕이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훈이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4개월이 넘게 비가 내리지 않자,

훈이뿐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훈이는 비가 오면 순이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을 오른 지 한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산등성이에 무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윤씨 할배가 말한 좋은 터라는 게 혹시 이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쉬었다 가자.”

훈이는 무덤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옆에 덕이도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니가 보기에는 여기가 어떤 것 같노?”

훈이가 묻자 덕이는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2 무제 : 기우제의 다른 말

3 고랑가 : ‘넋가’의 방언

4 장 : 많은 사람이 모여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파는 곳. 특정 날에만 만들어지는 시장.



그림. 김다운

“그러니까, 니가 보기엔 여기가 좋은 터인 거 같나?”

“좋은 터? 좋은 터가 뭔데?”

덕이는 매고 있던 가방을 풀어 물병을 꺼내고 훈이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근데, 윤씨 할배 말로는 좋은 묘터에 묘를 만들면 가뭄이 든다고 하데.”

훈이의 말에 덕이는 앉아있던 곳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서너 개의 봉분<sup>5</sup>이 봉긋이 올라있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훈이 니가 보기엔 어떤데?”

덕이는 마시던 물병을 훈이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내라고 알겠나. 그냥 답답해서 물어본다.”

훈이는 덕이가 건넨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답답하긴 덕이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농사를 지어 근근이 살고 있던 덕이네도 오랜 가뭄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훈이가 기우제를 지내러 가자, 라고 말했을 때

같이 나섰던 것입니다.

“윤씨 할배가 또 뭐라 카시든데?”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하늘로 화려하게 날아올랐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 잠깐 무덤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다다.

무릉산줄기에서 남자가 무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또 좋은 터에 묘를 만들면 가뭄 든다고.”

5 봉분 : 흙더미를 쌓아올려 만든 둥근 모양의 무덤



훈이는 발밑에 있던 나뭇가지를 힘껏 무덤가로 던졌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어디 숨어 있었는지 화들짝 놀라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덕이가 훈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니 그거 아나?”**

**“뭐?”**

**“무릉산 전설.”**

훈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모르고 덕이만 알고 있는 전설이 뭔가 궁금했습니다.  
“여기 무릉산이 마고할매가 말 타고 돌아다니는 곳이라 카데.”  
“마고할매?  
오줌 줄기가 바위 뚫고 산 무너뜨린, 그 마고할매?”  
훈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와 디게 큰 거인이라고 하잖아. 바위고 뭐고 닥치는 대로 삼켰다가 배가 아파서 싼 똥이 태백산맥 되고 입으로 토한 게 백두산이 됐다는. 그 마고할매.”

덕이 말에 훈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마고할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마고할매가 무릉산에 왔다고?”

훈이는 기우제를 지내려고 그렇게 급하게 무릉산에 올랐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마고할매 이야기에 마음이 쏙 빠졌습니다.

“그렇다네.

나도 김씨 아저씨한테 들었다.

마고할매가 무릉산을 바라보고 화살을 딱 쏘는데,  
말이 화살보다 늦게 도착해서 타고 있던 말을 죽였다고 하데.”

“그래서?”

“그 말의 무덤이 무릉산에 있다고 하더라.”

**“그기 진짜가?”**

훈이의 말에 덕이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그기 중요하나?”

방금 한 덕이의 말은 산을 오르며 훈이가 덕이에게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퍼뜩 나자 훈이도 덕이를 따라 웃었습니다.

해를 가렸던 구름이 물러나자 무덤가가 다시 환해졌습니다.

“갈까?”

훈이는 일어나 흙이 묻은 엉덩이를 툭툭 털며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가 보자.”

덕이도 무엇이 묻었는지 모르는 엉덩이를 훈이처럼 손으로 탈탈 털어냈습니다.  
훈이와 덕이는 무덤가를 지나 한참을 더 올라갔습니다.

앞이 확 트이고 마을이 환하게 내려다보이는 곳에 우뚝 섰습니다.

덕이가 눈을 찡긋하자 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이곳이면 기우제를 지내기 맞춤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 칼국수를 먹는 여름 밤

영해면 연평2리

덕이는 가방을 풀어 훈이가 넣었던 사과와 배를 정성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훈이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서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천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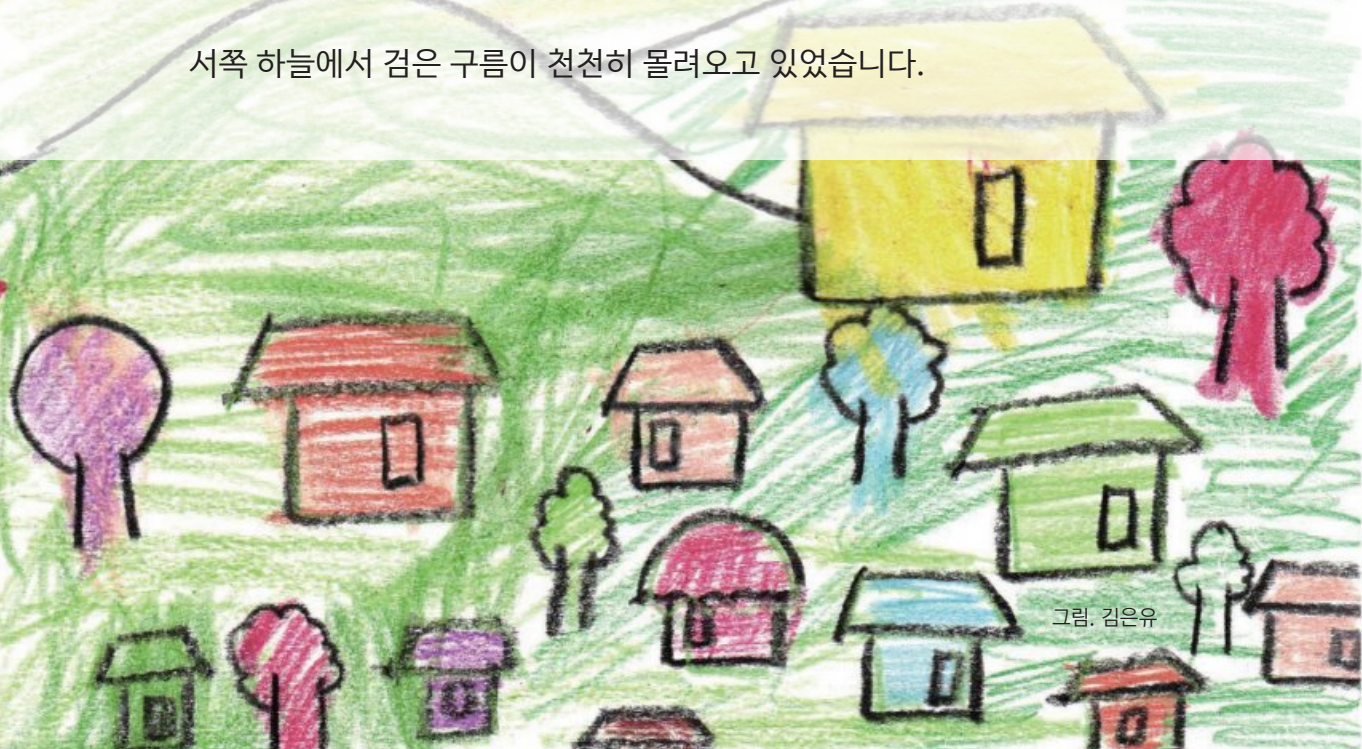


그림. 김은유



이 이야기는 영해면 연평2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연평리에서는 시금치 농사를 많이 해요. 동해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 시금치가 달고 맛있게 잘 자란다고 해요. 더우면 시금치가 죽어버리니까 여름이 지나고 추석 이후에 시금치를 많이 수확한다고 합니다.



연이네 집 마당 위로 크고 둥근 달이 떴습니다.  
마당 평상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연이,  
그리고 남동생 훈이까지  
모두 나와 저녁을 기다리지요.

## “누나야, 나 배고파.”

연이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엄마를 보았어요.  
엄마는 밀가루와 콩가루를 넣고 물을 부어 반죽을 하고 계셨어요.

연이는 얼른 평상으로 올라와 훈이에게 조그맣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훈아. 엄마가 금방 주실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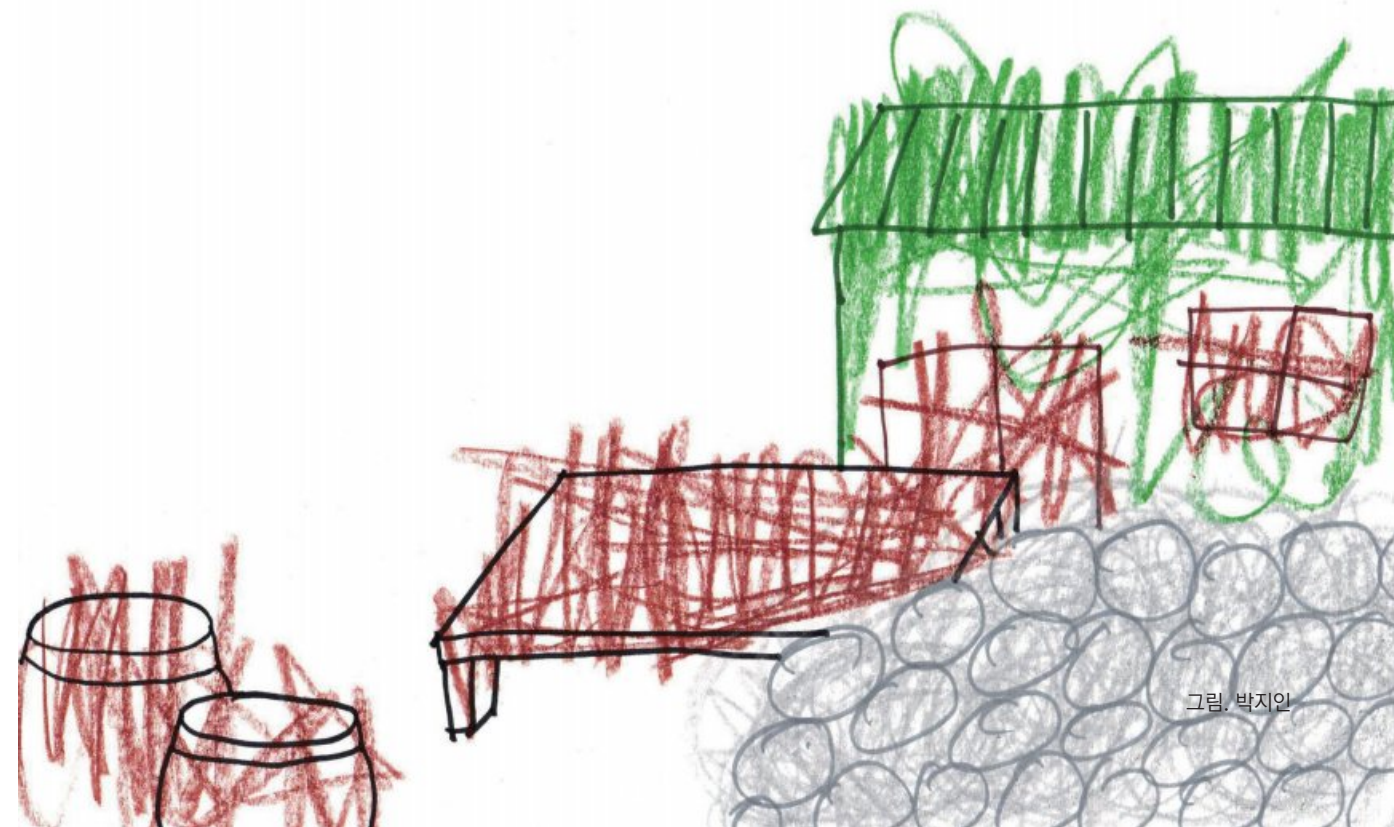


그림. 박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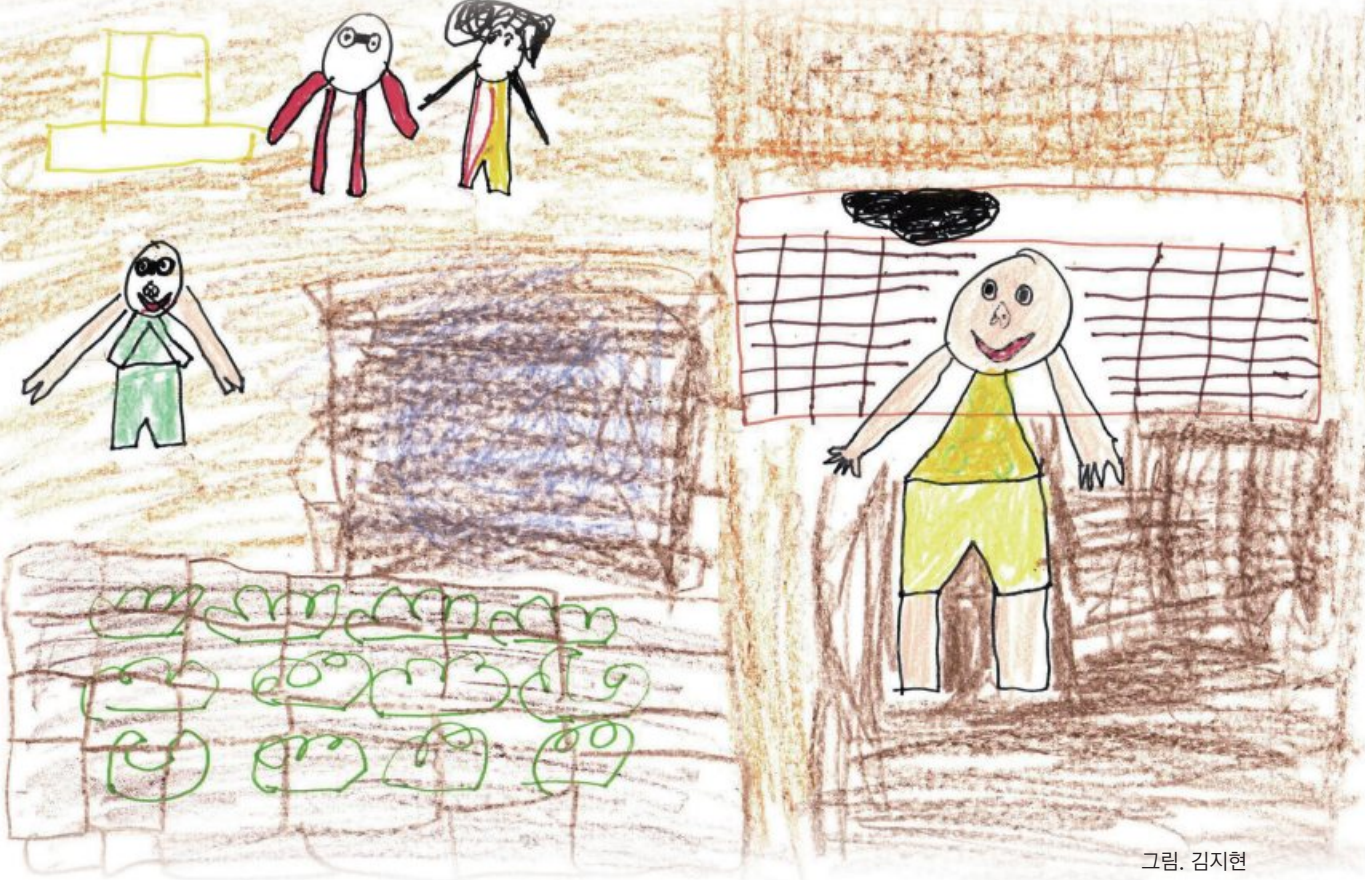


그림. 김지현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올해 양배추 농사는 어떨 것 같으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옆 동네 사는 순식이네가 양배추 농사를 하다 폭삭 망했다고  
하지요.  
훈이는 할머니의 “폭삭”이란 말에 키득거리다 아버지에게 혼이 났어요.

눈물을 찢끔 흘리고는 연이에게 조그맣게 말했죠.  
“누나야, 나 배 많이 고파.”  
연이는 다시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엄마를 보았어요.  
엄마는 반죽을 다 치냈는지 안반<sup>1</sup>에다 흥두께로 반죽을 얇게 밀고 있었어요.  
연이는 얼른 평상으로 올라와 훈이에게 조그맣게 말했죠.

**“조금만 기다려, 훈아. 엄마가 금방 주실 거야.”**

1 안반 : 손국수의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 때 받치는 두껍고 넓은 직사각형의 나무판.

아버지는 시금치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고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더울 땀 시금치가 죽어버리니까 추석 지나고 해보는 게 어떨겠느냐  
고 말씀하셨죠.  
할아버지는 동풍이 잘 불어서 시금치가 달고 맛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훈이는 할아버지의 “달고 맛있을 것 같다”라는 말에 입맛을 다셨어요.

침을 꿀꺽 넘긴 훈이는 다시 연이에게 조그맣게 말했죠.

**“누나야, 나 진짜 배고파.”**

연이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엄마를 보았어요.  
엄마는 펄펄 끓는 물에 송송 썬 감자랑 호박을 넣었어요.  
그리고 자른 면을 넣고는 연이를 보며 말했죠.  
“배 많이 고프지?”



그림. 박지인

연이도 훈이처럼 침이 꼴깍 넘어갔지만 고개를 가로저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얼른 평상으로 올라와 훈이에게 조그맣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훈아. 엄마가 금방 주실 거야.”

할머니는 보리농사를 다시 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좁쌀이나 보리농사는 소득이 없다고 말했죠.  
 아버지도 양배추가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울여름에 얼갈이하고 시금치를 심어보겠다고 할아버지께 말씀하셨죠.

훈이는 혼잣말로  
 “얼갈이, 얼갈이” 하고는 쿡쿡 웃다가  
 “어른들 말씀하는데, 쫓쫓쫓”  
 라고 할머니에게 핀잔을 들었죠.  
 입이 뻐로통해진 훈이는 가족들을 보고 울먹거리며 말했죠.  
 “나 진짜 진짜 배 많이 고프단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상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상을 받아 평상에 올렸어요.  
 양푼 가득 칼국수가 담겨 있었죠.

엄마는 그릇에 제일 먼저 담은 칼국수는 할아버지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담은 칼국수는 할머니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담은 칼국수는 아버지 앞에 두었어요.

할아버지가 국물 한 입을 떠서 드시고는  
 “아~ 시원타.”라고 말씀하셨죠.  
 할머니도 국물 한 입을 드시고는

**“국물 시원하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국물 한 입을 드시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 진짜 시원하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네 번째로 담은 칼국수를 연이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담은 칼국수는 훈이 앞에 두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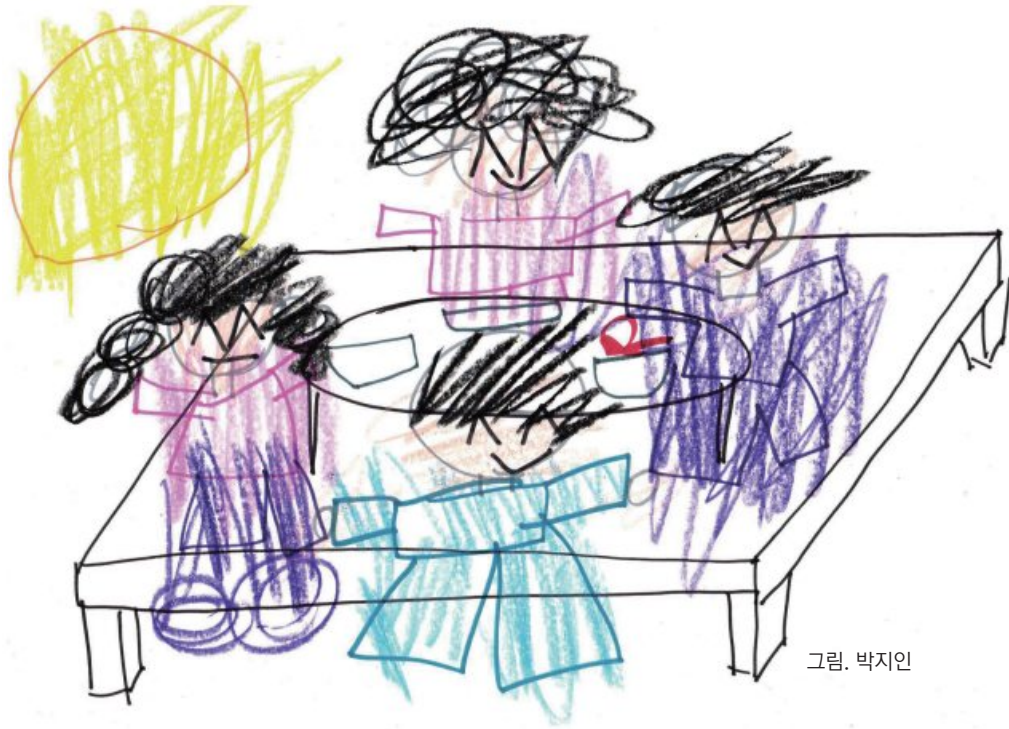
그림. 김지현

훈이는 냉큼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입 먹고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앗, 뜨거워.”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연이는 화들짝 놀란 훈이를 보며  
하하하 호호호 웃었습니다.

크고 둥근 달도 밤이 환해지도록 따라 웃었습니다.



# 길현이와 영오

지품면 신안리



이 이야기는 지품면 신안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60~70년 전 신안리에서는 주민의 대부분이 닥나무를 한지로 만드는 일을 하거나 담배농사를 하고 살았다고 해요. 닥나무를 삶고 껍질을 깎아서 나무 껍질은 닥나무공장에 가져가 한지로 만들고, 껍질을 벗긴 나무는 집에서 장작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 “길현아, 노올자.”

영오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길현이를 불렀습니다.  
마당에서 고추잠자리를 잡으려고 꺽충꺽충 뛰던 바둑이가 영오를 바라봅니다.

## “길현아, 노올자.”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바둑이가 꼬리를 흔들며 영오 옆으로 옵니다.  
영오는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더 크게 길현이를 불렀습니다.

## “길현아, 노올자.”

그림. 권경안





그림. 김서현

잠시 후 건넌방 작은 문이 열리고 길현이 할머니가 내다봅니다.  
“영오구나, 길현이 아버지 따라 밭둑에 갔다. 닻나무<sup>1</sup> 베러.”

영오는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달렸습니다.  
바둑이도 영오를 따라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다 뒤돌아보니 바둑이는 오던 길을 따라 다시 달려갑니다.

닻나무가 있는 밭둑은 길현이네 집에서 10분쯤 달려야 했습니다.  
영오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송 맺혔습니다.  
길옆으로 보리가 푸르게 익어갑니다.  
들바람이 영오의 목덜미를 스쳐 지나갑니다.

1 닻나무 : 한지를 만드는데 쓰이는 나무

저 너머 밭둑 아래 길현이가 보입니다.  
아버지의 지게에 닻나무 가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의 해가 아직은 뜨겁습니다.

## “길현아, 길현아!”

영오는 길현이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길현이가 영오에게 손을 흔듭니다.

“넋가 가서 먹감<sup>2</sup> 건데. 니도 같이 가자.”  
길현이는 고개를 내젓고는 영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아버지 도와드려야 된다.”  
길현이 말에 영오는 힘이 쏙 빠집니다.



그림. 김서현

2 먹감다 : 냇물이나 강물 등에 들어가 몸을 씻거나 놀다.

길현이가 없으면 하나도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영오가 동네에 같이 놀 친구라고는 길현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길현이와 영오는 친형제처럼 사이가 좋습니다.

영오는 길현이가 닻나무 가지를 쌓고 있는 걸 한참을 보고 섰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냇가에서 영오와 물장난 치는 게 제일 신이 난다는 걸  
길현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현이가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영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길현이 아버지가 빈 지게를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영오가? 우리 길현이랑 같이 놀라고 왔나.”  
영오는 크게  
“네!”라고 말하고는 뒷머리를 긁습니다.

길현이 아버지가 방긋 웃으며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이마를 닦습니다.

“그만 됐다. 길현아. 시원한 데 가서 영오랑 좀 놀아라.”  
“오늘 닻나무 찌는 날이잖아요. 혼자서는 하기 힘드세요.”  
길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닻나무 가지가 올려진 아버지의 지게를 짊어집니다.

지게가 무거운지 잠깐 뒤로 기우뚱 쏠렸습니다.  
때마침 영오가 지게를 뒤에서 받쳤습니다.  
그러자 길현이가 다리에 힘을 주고 우뚝 섭니다.

영오는 뒤에서 길현이의 지게를 손으로 슬쩍 받칩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럼, 길현아. 그거 냇가 옮겨주고 놀아라.”  
아버지는 영오를 보고 눈을 찡긋합니다.  
영오가 방긋 웃습니다.  
논두렁 길옆으로 가을 햇살이 노오랗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영오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크게 부릅니다.  
길현이 아버지가 꺾꺾 웃었습니다.  
길현이는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좋아  
자신도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크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길현이 아버지가 꺾꺾꺾 웃었습니다.  
영오도 길현이도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길현이는 등에 진 지게가 하나도 무겁지 않았습니니다.  
영오는 조금 더 힘을 내 길현이의 지게를 받쳤습니다.

냇가에 도착한 길현이는 끄, 하고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영오가 그 뒤를 힘껏 받치고 있다가 지게가 쓰러지지 않게 잘 세워둡니다.  
길현이가 영오를 바라봅니다.  
영오의 손바닥이 빨갱습니다.  
그제야 길현이는 영오가 뒤에서 지게를 받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현이 아버지는 크고 긴 철제 가마솥에 물을 채우고 닻나무를 차곡차곡 쌓아  
그 위에 거적<sup>3</sup>과 흙을 덮고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하늘이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냇물도 금세 주홍빛이 됩니다.

3 거적: 물건을 덮기 위해 넓게 엮은 짚

길현이와 영오는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주홍빛 냇물로 첨벙 뛰어듭니다.

## 닥나무가 푹푹 찌지는 사이 길현이와 영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씩 가마솥 뚜껑을 여닫으며  
장작을 불구덩이에 더 넣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힘이 든 줄 모릅니다.

영오는 길현이와 노는 게 제일 재미나다고 생각합니다.  
길현이도 영오와 함께 노는 게 제일 신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 햇살이 아버지 곁에 앉아 꾸벅 조는 늦은 오후입니다.



그림. 권경안

# 호랑이 신랑

창수면 오촌1리



그림. 박선우



이 이야기는 창수면 오촌1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오촌리에서 영해를 가는 산길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마을에도 가끔 나타났다고 해요. 방앗간의 디딜방에 호랑이가 나타났던 일은 마을 어르신들 모두가 아는 이야기에요. 1960년대에는 어느 집 마당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아기를 물고 가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옛날 창수면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야.  
산 위쪽으로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을 한참을 가야 영해까지 넘어갈 수 있었지.  
그런데 그 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고 해.

호랑이?

**진짜 호랑이냐고?**

그렇지. 진짜 호랑이지.



그림. 이지민

그 마을 착하고 예쁜 처녀가  
 늦은 밤 보리쌀을 찢으러 산 밑에 있는 방앗간에 갔었지.  
 혼자 말이야.  
 안 무서웠냐고?  
 다음 날이 혼자 계신 아버지 생신이었거든.  
 먹을 게 귀하던 시절이라 종일 날품을 팔아 보리쌀 한 되를 받았는데,  
 그걸로 아버지 생신상을 봐드리려고 그 밤에 방앗간에 갔던 거야.  
 그런데 호랑이가 날름 처녀를 물고 가버렸지 뭐야.

그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는 자리에 누워버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 처녀를 찾겠다고 난리였지.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총각들이 처녀를 구하려고 온 산을 돌아다녔어.

하지만, 호랑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  
 처녀를 구하러 산에 올라간 총각들은 하나같이 호랑이에게 물려갔지.



그림. 이지민

동네는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  
 그리고 이제 아무도 처녀를 찾겠다고 나서질 않았지.

그 마을에는 대대로 훌륭한 학자들이 나온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에는 영리하고 몸이 가벼운 외동아들 하나 살고 있었지.  
 그는 담배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을 정성스레 모시고 살고 있었어.  
 그는 어릴 적 큰 병을 앓아 청각을 잃고 처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

그러던 어느 날,  
 처녀의 할아버지가 그 집으로 찾아온 거야.  
 “여보게, 내 딸 좀 살려주게.”  
 할아버지는 마당을 들어서자마자 이씨의 손을 잡고 부탁하였어.  
 사실 할아버지와 이씨는 절친한 벗이었거든.  
 예전에 이씨의 아들이 어려서 큰 병을 앓을 때  
 할아버지가 돈을 빌려줘 죽어가는 아들을 겨우 살릴 수 있었던 거였어.  
 물론 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씨는 아들이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자신의 친구를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만, 호랑에게 잡혀간 할아버지의 사정을 모른 척했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머뭇머뭇 벗의 손만 잡고 있었어.

## 그때였어.

이씨의 아들이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게 된 거야.  
 “오셨어요, 아저씨.”  
 아들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통곡을 했어.

아들은 할아버지의 구슬픈 울음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얼마나 아픈지 마음으로 느꼈지.

아들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혹여나 하나뿐인 아들이 다칠까 봐 노심초사<sup>1</sup>했지.  
아들은 다급한 마음에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어.  
“아저씨, 제가 듣지 못해 아저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저씨의 입모양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랬어.  
아들은 듣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모양으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  
할아버지는 자신의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림. 박선우

1 노심초사 : 어떠한 일에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그림. 이지민

그리고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에게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sup>2</sup>를 했어.

그날 밤 아들은 부모님이 잠에 들자,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  
달은 밝고 별들은 쏟아질 듯 반짝거렸어.  
아들은 한참을 걸어 처녀가 물려갔다고 하는 산 밑 방앗간에 갔지.  
아들은 방앗간에 들어가서 준비해 간 보따리를 풀었어.  
거기에는 치마저고리와 쓰개치마<sup>3</sup>가 있었지.  
아들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쓰개치마를 머리에 쓰고 디딜방아를 짚었어.

얼마쯤 지났을까.  
밖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났어.

2 신신당부 : 거듭하여 간곡히 말하는 부탁.

3 쓰개치마 : 옛날, 여자들이 머리와 몸 윗부분을 가리어 쓰던 치마.

아들은 그것이 호랑이가 걸어오는 발소리인지 알 수 있었지.  
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디딜방아를 계속해서 짰었어.

그때였어.

**쿵**, 소리와 함께 방앗간 문이 열리고 호랑이가 거기 서 있는 게 보였어.  
아들은 쓰개치마를 눌러쓰고 고개를 조아렸지.

호랑이는 아들을 어여쁜 처녀라고 생각했는지  
냉큼 물고 달리기 시작했어.  
호랑이는 깊고 깊은 산속으로 달리고 또 달렸지.  
한참을 달리던 호랑이는 동굴 앞에서 멈춰 섰어.

물고 있던 아들을 내려놓고 **“어흥”** 하고 울음을 토해냈지.  
잠시 후 동굴 안에서 처녀가 나왔어.

처녀의 손에는 날 것이 들려 있었어.

호랑이가 다시 **“어흥”** 하고 소리 내자 처녀는 바닥에 날 것을 내려놓았지.  
그러자 호랑이는 그것을 덥석 물어 꿀꺽 삼켰지.

그리고 다시 **“어흥”** 하고 울부짖자  
처녀는 바가지에 담긴 물을 한 바가지 내왔어.  
그걸 달게 마시고 호랑이는 잠이 들었어.  
아들은 그 모습을 찬찬히 보고 있었지.  
호랑이가 깊게 잠이 들자,  
처녀는 아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  
“다친 데는 없니?”

아들은 그제야 쓰개치마를 벗어 처녀를 바라보았지.  
처녀는 너무 놀라 소릴 지를 뻗었어.  
그 순간 아들이 잽싸게 처녀의 입을 막아서 호랑이는 들을 수 없었지만 말이야.



그림. 박선우



그림. 이지민

# 세 친구

축산면 도곡1리

처녀가 아들을 데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  
‘어떻게 여길 오셨어요?’  
처녀는 입모양으로 아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  
처녀와 아들은 집안끼리 가깝게 지내던 터라 이미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  
아들은 고개만 끄덕이고 처녀의 손을 잡았어.  
그리고 동굴 안을 찬찬히 살펴보았어.  
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처녀를 이끌고 동굴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어.  
한참을 걷다 보니 물소리가 들렸어.  
처녀는 아들에게 물소리가 들린다고 입모양으로 말했어.  
둘의 걸음은 빨라졌어.  
또 한참을 더 걷다 보니 새소리도 들렸어.  
처녀는 다시 아들을 붙잡아 세우고 어디선가 새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  
그러자 아들은 처녀의 손을 붙잡고 뛰기 시작했어.  
눈앞에 작고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렇게 둘은 하루 만나절<sup>4</sup>을 걸어서  
동굴 반대편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

그 길로 아들과 처녀는 혼례를 올렸지.  
마을 사람들은 처녀를 구해온 아들을

**‘호랑이 신랑’**으로 불렀어.

그리고 아들과 처녀는  
호랑이같이 씩씩하고 건강한 아들딸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



그림. 이지민

4 만나절 : 하룻낮의 반

마을 지천에 창포가 피어 있습니다.  
숙이네 집 근처 도랑가에도  
경자네 집 담벼락 아래에도  
혜화네 집 작은 못에도  
창포가 잎을 울리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창포 잎은 더 푸릇푸릇합니다.



이 이야기는 축산면 도곡1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단옷날 수양버들과 같이 예쁜 머리를 기르기 위해 수양버들 가지와 제피 잎을 넣고 삶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고 해요. 또, 단오가 지나면 미나리가 익세져서 먹기 힘들기 때문에 단옷날 마지막으로 미나리를 무쳐 먹었다고 합니다.



그림. 최형석

경자가 헐레벌떡 고개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숙이가 경자에게 얼른 뛰어갑니다.

## “뜯어왔나?”

숙이는 경자를 이리저리 훑으며 물었습니다.  
경자가 치마폭을 펼치며 수양버들 한 움큼을 내놓습니다.  
숙이와 경자는 깔깔깔 웃고는 혜화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마 혜화는 솥에 물을 올려두었을 거랍니다.

“아궁이는 지폈나?”

경자가 묻자, 혜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숙이 니는 창포 좀 뜯어온나.”

혜화는 앞치마에 손을 쓱 닦고 부엌에서 나오며 숙이에게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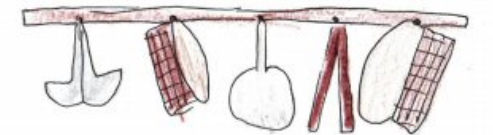
그림. 이나윤

숙이와 경자 그리고 혜화는  
어릴 적부터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있는 친한 벗이랍니다.  
셋은 창포탕을 만들기 위해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 오늘이 단옷날<sup>1</sup>이기 때문입니다.

단옷날에는 늘 셋이서 함께 했습니다.  
창포탕을 만들어 머리도 감고  
미나리도 무쳐 먹고  
재미난 이야기도 나눴답니다.

물이 끓을 동안  
숙이는 집 근처에 있는 창포를 한아름 뜯어 왔습니다.  
혜화는 우물물을 길어 담아 놓았고요.  
그리고 경자는 수양버들 줄기와 창포 잎을  
맑은 우물물에 잘 씻습니다.



“물 끓는다.”

혜화가 부엌에서 숙이와 경자를 불렀습니다.  
경자는 씻어놓은 수양버들과 창포를  
소쿠리에 담아 숙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숙이가 소쿠리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림. 이나윤

1 단오 : 음력 5월 5일을 명절로 이르는 말.

혜화가 앞치마를 말아 솔뚜껑 손잡이를 쥐고  
가만히 옆으로 밀자,  
흰 김이 부엌 천장까지 올라갑니다.  
뜨거운 김이 걷히자 가마솥 안에 펄펄 끓는 물이 보였습니다.  
숙이는 소쿠리에 담긴 수양버들 줄기와 창포 잎을,  
혜화는 제피를 솥에 넣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창포탕이 될 거랍니다.

그 사이 경자는 독 뚜껑 세 개를 찾아와 잘 닦아 놓았습니다.  
혜화는 솥에서 창포물을 떠서 독 뚜껑에 조심조심 붓습니다.  
숙이가 창포물 담긴 독 뚜껑을  
마당으로 가만가만 가지고 나갑니다.

“뜨겁나?”  
경자가 묻자, 혜화가 창포물에 손등을 살짝 가져다 댍니다.  
“아니.”  
혜화의 말에 경자와 숙이는 묶여있던 머리칼을 풀었습니다.  
혜화도 검은 머리칼을 어깨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셋은 각자 앞에 놓인

## 창포물에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깔깔깔 웃었습니다.

머리를 다 감고 셋은 마루에 올라앉아 바람을 맞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5월의 바람에 조금씩 말라갑니다.





그림. 이나윤

“배고프다.”

경자의 말에 숙이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혜화는 부엌에 들어가 소반을 내옵니다.

보리밥이 담긴 큰 그릇과 생미나리무침, 그리고 장이 전부입니다.

경자가 생미나리무침을 보리밥에 넣자

숙이가 장을 한 손갈 퍼서 밥에 올립니다.

혜화와 경자와 숙이는 숟가락을 부딪쳐 가며 밥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까르륵 웃었습니다.

셋은 밥을 싹싹 먹고 한 손갈 정도가 남자

경자가 손갈을 딱 놓고 말합니다.

“아, 잘 먹었다.”

그러자 혜화도 소반 위에 숟가락을 딱 놓고 따라 말합니다.

“나도 잘 먹었다.”

숙이가 남은 한 손갈의 밥을 보고는

“진 사람이 먹기데이.”라고 말합니다.

셋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리고 까르륵 웃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니 누가 졌을까요.

혜화네 집 마당을 지나가는 바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림. 최형석



그림. 이나운

# 우리 엄마는요

다문화 가정



그림. 박형준



이 이야기는 영덕에 사는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처음 시집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언어였다고 해요. 당시에는 한국어를 따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짓과 표정으로 뜻을 유추해가며 한국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 “너희 엄마는 왜 얼굴이 까매?” 라고

영희가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창피해서 그냥 울어버렸죠.



그림. 임선미

선생님이 왜 우냐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갔을 때,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얼굴이 까만 건 나쁜 거야?”  
그러자, 엄마가 날 꼬옥 안고 말했죠.

“경아야, 엄마가 한국 왔을 때 아빠가 처음 사준 게 짜장면이었어.  
그런데 색깔이 까매서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한 입 먹고 나니 너무 맛있는 거 있지.

## 까만 건 나쁜 게 아니야.

처음엔 누구나 잘 모르니까 무서울 수 있지.  
잘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나는 다음 날 영희한테 가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 “우리 엄마는 필리핀에서 왔어.”



## “너희 엄마는 왜 말을 잘 못해?”라고

철이가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울그락불그락 얼굴에 열이 올랐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화가 났어요.  
그냥 다 싫었죠.

집에 갔을 때,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엄마는 왜 나보다 말을 잘 못해?”  
그리고 너무 속상해서 울어버렸죠.  
그러자, 엄마가 날 꼬옥 안고 말했죠.

“경아야, 엄마가 한국 왔을 때 제일 노력한 게 한국말이었어.  
나는 예쁜 아기를 낳을 테니까  
그 아기에게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가르쳐주어야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한국말을 연습했어.

## 그런데 아직도 많이 서툴지?

우리 경아가 엄마보다 훨씬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를 좀 가르쳐줄래?

## 엄마가 더 노력할게”

나는 다음 날 철이한테 가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필리핀에서 왔어.”** 라고요.

우리 엄마는요,

여기 사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조금 더 까매요.

눈썹도 조금 더 까맣고

점도 조금 더 까만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까맣지 않아요.

우리 엄마 마음은 희고 보들보들해서

옆집 순철이 할머니랑도 잘 지내고

뒷집 기복이 할아버지 반찬도 챙겨줘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정말 씩씩해요.

한국말을 빨리 배우려고 병원에도 혼자 가고

행정복지센터에도 혼자 갔어요.

잘 모르면 묻고 또 물으면서 한국말을 혼자서 배웠어요.

그런 우리 엄마도요,

시원하게 바람 부는 날이면 고향이 그리다고 해요.

고향에 혼자 있는 엄마가 그리다고 해요.

# 부록

마을별 채록된 이야기  
간담회 사진  
이야기 제공 어르신  
삽화 그리기 활동 후기  
도움주신 분들

먼 곳에 엄마가 있으면 어떤 마음일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랑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슬플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날은 내가 엄마를 꼭 안아줘요.

나는 가끔 엄마한테 할머니 얼굴이 궁금하다고 하면  
엄마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말하죠.

“요렇게 생겼어.”

자글자글 주름을 가진 엄마는  
그래도

## 내게는 제일 이뻐요.

우리 엄마는요,  
필리핀에 왔지만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김치도 잘 먹고  
라면도 잘 끓이고  
목욕탕에 가면 혼자 온 할머니 등도 잘 밀어줘요.

## 우리 엄마는요, 참 이쁜 사람이에요.



## □ 남정면 부경2리

### ○ 6.25 전쟁

- 학교 다니다가 산으로 피난가서 숨었다.
- 북한군이 비어있는 집의 음식을 다 털어갔다.
- 장사리전투 당시, 배에서 총을 맞아 죽거나 총알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가 파도에 잠겨 죽은 학도병들
- 피난 중 밥이 없어 길거리 고추를 따서 먹었다.
- 미군 중 흑인을 처음 보고 피부가 까맣고 눈과 치아만 하얗서 무서워했다.
- 외동아들이었지만 동부전선에서 전사한 오빠
- 바다엔 우리 군, 산엔 북한군이 있었다.
- 북한군이 밤마다 마을로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밤에는 옆동네로 도망갔다.
- 북한군이 집으로 들어와 살림살이를 다 가져가버리니까 항아리에 숨겨서 땅에 묻어놨다. 그랬더니 북한군이 창으로 땅을 찌르면서 항아리가 있나없나 확인했다.
- 바다에서 마을 집으로 포를 쏘서 산으로 피난가서 움막짓고 살았다.
- 피난 중 밥 담아먹을 그릇이 없어서 챙겨온 작은 고추장 단지를 깨트려 밥을 담아 먹음.
- 북한군이 밤에 내려와 사람을 다 죽여놓고 동이 트면 나팔을 불면서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
- 바다에서 포를 쏘니까 회동 골짜기로 산으로 도망을 갔다.
- 북한군은 주전자에 고춧가루를 타서 코로 먹이는 등 고문으로 주민들을 항복시켰다.
- 밤에 북한군들이 마을로 내려와 숨어있으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민가에도 불을 키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불을 켜더니 북한군이 들어와서 불을 왜 켜냐고 하는데, 애가 방에서 똥을 싸서 켜다고 하니 그건 봐줬다.
- 장사에 학도병들의 시체와 담요 등 군 물품들이 파도에 떠밀려왔다.
- 북한군이 후퇴길에 영해 공밭에 죽어있었다.

### ○ 전통 놀이

- 정월보름에 윷놀이, 사물놀이
- 아이들 업고 따라다니면서 강강수월래처럼 빙빙 돌았다.

## □ 강구면 삼사리

### ○ 시집살이 이야기

- 산 언덕 위 높은 밭에 물을 길러가고 오물(거름)을 담아가다.
- 시할머니와 팔남매가 함께 살았다.
- 농사지을 때 거머리가 다리에 까맣게 들러붙었다.
- 농사지을 때 참으로 칼국수, 수제비, 개떡 등을 먹었다.
-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머리에 이고 가면 물동이 가 흔들리면서 반을 쏟았다.

- 비오는 날 장뚜껑을 씻으러 바다로 갔다가 파도에 쓸려갈 뻔 했다.
- 그 이후 몇 년을 물을 무서워 하다가 몇십 년 동안 배 타고 어장 일을 했다.
- 시집 오기 전에는 치마만 입고 살다가 삼사리로 시집와서 보니 여자들은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고 남자들은 항고(도시락)를 들고 다니니까 걸비(거지)들이 사는 동네인 줄 알았다.
-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동생까지 함께 한 집에 살았다. 집 나가면 귀신 되는데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다. 한 집에 식구가 많다보니 식기가 부족하여 동시에 밥을 먹지 못했다.
- 애기가 백일까지 기침을 하길래 데리고 친정에 갔더니 애가 친정와서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안된다고 다시 시댁으로 보내버렸다.
- 당시에는 시부모도 부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부모가 밍다는 생각은 안했다.
- 시댁식구와 한 집에서 살다보니 ‘낮에는 남 보듯이, 밤에는 임 보듯이’ 하라는 말이 있었다. 낮에는 보는 눈이 많으니 말도 잘 섞지 못했다.
- 예단으로 옷, 이불, 버선을 해왔다. 옷은 본인이 입을 옷으로, 10가지를 한 줄로 묶어서 5~6줄씩 해갔다. 시집에 가면 예단을 무엇을 해왔는지 다 풀어놓고 구경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했다.
- 중매를 위해 시어머니랑 시댁 여자 어른 한 명이 같이 나를 보러 왔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까 고개를 들어보라고 얘기도 안하고 손으로 턱을 잡아 고개를 들더라.

### ○ 부자집에서 곡식과 돈을 빌려주는 ‘장기’

- 곡식을 빌려먹고 이자를 붙여 갚는 문화 (사창제에서 유래된 듯함)
- 돈이 없는 사람이 빌려가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 빌려준 이유, 없는 사람이 빌리러 오지 않는 사람이 빌리러 오지 않는다. 나는 있는데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안 빌려줄 수 있느냐

### ○ 6.25 전쟁

- 보리 창고에 폭탄이 터져서 불이 났었다.

### ○ 당시에는 동장이 집마다 돌아다니며 출생신고를 대신 해줬는데, 동장이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서 신고하고, 몇 년 늦게 신고하기도, 태어나기도 전에 신고하기도 했다.

## □ 축산면 도곡1리

### ○ 무안박씨 집성촌

- 현재는 객지로 많이 나가고 1/3정도 외지사람
- 한 집안이 마을에 모여 사니까 보수적이고, 예의차리고, 사려 살 수 밖에 없었다.
- 뼈대있는 집안이라 새하얀 상복을 1년 동안 입어야했다.
- 명절 때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절을 올렸다. 한 마을이 모두 가족이니까 제사가 굉장히 많았고, 제사를 지내다가 망한 집도 있다.
- 마을 사람들을 향렬로 따져서 할배, 할매, 형님이라고 부른다.
- 동네 사람들이 다 한집안이니까 집 밖에서도 색시질을 해야했다.

### ○ 제사 이야기

- 제사 지낼 때에나 떡을 해먹었고, 떡 없이 과일과 고기만으로 제사상을 차리는 집도 있었다.
- 과일도 귀해서 사과와 배를 잘라서 조각으로 올리기도 했다.

### ○ 음식 이야기

-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쌀, 보리, 나물 등으로 죽을 해먹고 살았다.
- 콩 넣은 감자떡, 쑥떡, 밀과 쌀을 섞어 만든 떡, 보리개떡 등을 해먹었다.

### ○ 농사, 시집살이 이야기

- 이 지역은 논밭에 약을 잘 치지 않고 비료도 잘 안뿌리니 수확이 잘 안됐다.
- 쌀, 보리 농사는 돈을 별로 못 벌었다.
- 들일, 밭짓기, 빨래, 옷에 풀칠 등 너무 바빠서 애들 키울 때에는 이웃집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
- 산아제한으로 자식을 2~3명씩만 낳았다. 2명이 넘어가면 보건소 주도로 포항에 가서 복강절개 낙태 수술을 했다.

### ○ 단오 전통

- 수양버들과 같이 예쁜 머리를 길게 기르기 위해 수양버들과 제피를 넣고 삶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
- 창포물에 머리를 감은 후 궁구이를 귀에 꽂아 귀신을 쫓아냄
- 덜 익은 밀을 그을려서 비벼서 먹었다. 덜 익은 보리도 그렇게 해 먹었다.
- 미나리를 무쳐 먹었다. 생미나리무침과 데친 미나리무침의 양념이 달랐다. 단오가 지나면 미나리 환갑이라(미나리가 늙어버려) 단오날 먹어야했다.
- 19살에 친구들과 빨간 꽃무늬 블라우스를 맞춰 입고 옆 동네에 놀러갔더니 기생으로 오해받았고, 집에 들어오니 아버지께 크게 혼내면서 옷을 찢어버리셨다.

## □ 영해면 연평2리

### ○ 시금치가 유명해진 이유

- 서울에서는 하우스에 시금치를 해서 여름에도 시금치가 나오지만 여기는 노지에 심어서 가을(9월) 밖에 안나왔었다. 손덕수 의원이 오이, 토마토 등 시설 재배를 위해 하우스를 지었는데, 여름에 열갈 이하고 할게 없으니깐 뒤늦게 시금치를 심어서 11월에 수확했다. 하우스가 크니까 출하 양이 많고 그때부터 바이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이후 하우스를 하는 집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 바닷가라 동풍이 잘 불어서 시원하고 시금치가 달고 맛있게 잘 자란다.

### ○ 농사

- 70년 전에는 양배추 농사를 많이 했다. 양배추를 하다가 폭삭 망한 사람이 있다더라.
- 옛날에는 판로가 없으니깐 시금치, 파, 배추 등 동네에서 먹을 것만 했었다.
- 예전부터 논이 없고 들이 많고, 읍이 가까워서 다라이 이고 가서 팔기에 좋았다.
- 봄배추, 파, 가을배추 1년에 3번했다.

- 점심엔 국수 삶아먹고 참으로 감빵(건빵) 먹었다. 같이 일하느라 바빠서 참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 7월부터 9월 중순까지는 더워서 쉬고, 그 외에는 계속 일한다. 더울 땀 시금치가 죽어버려서 안한다. 추석 이후부터 시금치 수확, 그래서 뜨거울 때 잘 키워내면 돈이 된다. 살아남는게 20%밖에 안된다.
- 서숙(좁쌀), 보리 농사를 하다가 할 게 없어서 양배추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양배추 한 통에 150~200 원이었다.
- 양배추 이후에 파, 배추를 하다가 현재는 시금치를 많이 하고 있다.
- 옛날엔 포트(화분)가 없어서 비닐에 흙을 담아 심었다. 평평한 비닐을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밤마다 초로 비닐을 붙였다.
- 비닐하우스가 없을 때 짚을 썩혀서 나오는 열로 땅을 따뜻하게 만들어 싹을 틔웠다.

### ○ 음식

- 시나나빠(유채나물)를 지지개하고, 무치고, 쌈 싸먹고 했다. 곁절이하고.
- 시나나빠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 어른들이 시금치를 호랑수라고 하기도 했다.
- 보리개떡, 노지 참외
- 참외지, 오이지 같은 것은 안했다. 여기 엄마들이 그만큼 지혜는 없었더라. 일하느라 그런거 할 시간이 없었다.
- 장아찌는 요새 나왔지 옛날에는 깍해야 마늘쫑 고추장에 박아놨다가 무쳐먹고, 겨울에 김장 무 같은거 씻어 말려서 된장에 박아놨다가 먹고 그 정도 외에는 학교갈 때 도시락 싸주고 일하고 돈벌기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었다.

### ○ 콩가루가 들어간 칼국수

- 밀가루와 콩가루를 4:1로 넣고 물을 넣어 반죽한다. 반죽을 치댄 후 암반에 홍두깨로 반죽을 아주 얇게 민다. 얇게 민 반죽을 살짝 말린 후, 면으로 자르고 멸치다시 넣은 물에 감자, 호박 순치(채친 것)와 함께 끓인다.
- 반죽을 밀 때 분가루를 많이 묻히면 국물이 뽀뽀해진다.
- 국수 꼬랑데기(국수 자르고 남은 반죽)를 구우면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고, 어릴 땐 그걸 맛있게 먹었다.
- 반죽을 살짝 말려야 삶아도 면끼리 안붙고 밀가루도 덜 떨어져 나온다.

### ○ 홍두깨 미신: 홍두깨는 세워두면 안된다.

- 홍두깨를 시체 옆에 세워뒀더니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다.
- 이 미신은 홍두깨가 넘어지면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만든 이야기일 것이다.

## □ 달산면 학구마을

### ○ 6.25 전쟁

- 휘발유를 뿌려서 80호의 집을 태워버렸다. 온 동네가 다 타버렸다. 피난갔다 돌아오니 다 타버리고 솔 밖에 안남았더라.

- 피난 갔다 오니 포항 해병대들이 와서 유골발굴을 했다. 유골을 묻어놓고 높은 사람들 자리에는 막대기를 꽂아냈다. 유족을 찾은 사람은 유골을 보내주고, 못 찾은 사람은 현충원으로 보냈다.
- 강구 다리를 끊어버려서 장사리에서 올라오던 인민군들이 달산을 통해서 축산으로 올라갔다.
- 전쟁에 나가기엔 어린 나이였다. 부모님 손잡고 같이 피난갔다.
- 빨갱이라고 부르길래 사람이 빨간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이 생겼더라.
- 인민군이 후퇴할 때 이 지역을 지나갔다. 낮에는 민가에서 밥을 해먹고, 어두워지면 산으로 넘어갔다. 낮에는 미국 비행기가 날아다니니까 돌아다니지 못하고 밤에만 움직였다.
- 북한군이 지나간 다음에 동네가 폭격 당했다. 당시에는 부대 간 연락이 원활하지 않으니 낮에 정찰 나와서 북한군이 있나 확인하고 장사로 돌아가 폭격을 했다.
- 밥을 하면 연기가 나서 공격당하니까 비상식으로 밀과 콩을 볶아 들고 다니면서 먹었다.
- 군대 같은 나이의 남자들은 북한군이 총 쏘서 다 죽여버렸다.

○ 당시에는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정해져있지 않았다.

○ 궁터길의 유래

- 신라시대에 주왕이 주왕산으로 가다가 흥기3리에서 쉬었다 갔다. 왕이 머물렀던 곳이라 궁터길이 됐다.

## □ 지품면 신안리

○ 닥나무공장과 담배농사

- 닥나무를 깎아 공장에 가져가 문종이(한지)를 만들고 품으로 보리와 조 등을 받았다. 쌀이 없으니 깡보리밥, 깡조밥을 먹었다.
- 주민의 2/3가 닥나무공장 일을, 1/3은 담배농사를 하고 살았다.
- 영덕에 나가 담배를 팔았다.
- 닥나무가 밭둑에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론 모자라서 남정 장사 너머까지 가서 사서 차로 실어왔다.
- 닥나무를 찌서(삶아서) 나무 껍질은 종이로 만들고, 껍질 벗긴 나무는 집으로 가져가 장작으로 썼다.
- 닥나무를 깎아 파는 사람들은 닥나무의 무게를 달아서 kg당 얼마씩 품을 받았다.
- 질 좋은 종이는 문에 붙이고, 질이 안좋은 종이는 벽 바를 때 안종이로 쓰였다.

○ 농사

- 옛날엔 복숭아 농사를 했었는데 요즘엔 하지 않는다.
- 큰 송이산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송이가 비싸지 않아서 송이 하는 사람에게 송이를 얻어먹기도 했다.
-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송이가 잘 자라지 않고 산불도 많이 나서 귀해졌다.

○ 6.25 전쟁

- 마늘을 따러 갔다가 입 아래쪽에 총을 맞아서 아랫니가 나갔다. 인민군에게 치료를 받으러 다녔었다.

○ 병원이 멀어서 못다님

- 자식이 홍역에 걸렸을 때 병원에 못가고 약도 없어서 민물가재를 삶아서 약이라고 떠먹여줬다.

○ 임신한 것이 남사스러운 일이었다.

- 집에서 애 낳을 때 아파도 소리를 못 냈다.
- 배가 많이 불러도 일을 하러 다녔다.

○ 시집살이

- 당시엔 비누가 없어서 잿물로 빨래를 했다.
- 디딜방아로 보리를 찧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생각해보니 아침밥을 안먹었다. 시어머니가 아침밥을 왜 안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집안일에, 밭일에, 다른 식구 식사까지 챙겨주느라 너무 바빠서 아침 먹을 시간도 없었다.

## □ 영덕읍 천전리

○ 무릉산 전설

- 마고할매가 말을 타고 돌아다니던 곳이다. 마고할매가 산을 바라보고 화살을 쏘는데 말이 화살보다 늦게 도착해서 말을 죽였다. 그 말의 돌무덤도 있다.
- 좋은 묘터가 있는데, 거기에 묘를 만들면 영덕에 가뭄이 들었다. 묘터를 쓰지 못하고, 그 근처 산줄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 가뭄이 들었을 때 남자 : 산 인근에서 무제를 지냄 (무우제, 기우제)  
여자 : 고랑가에 장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온다.(강가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 과거 일상 이야기

- 오십천에 다리가 생기기 전에 읍내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 부모들이 아이를 업고 강을 건넜다.
- 시집왔을 때 6.25 전쟁에 불 타 없어진 집 대신 오두막을 지어서 살고 있더라.
- 옛날엔 수박농사를 많이 했는데 부산 장사꾼들이 다 가져다 팔았다.
- 이 동네 채소는 여기서 다 해결했다.
- 70년대에 경지정리
- 아랫동네에 야간학교가 하나 있었다.
- 영덕고등학교를 여기 지으려고 했지만 3000평정도 되는 부지의 농민자가 땅을 팔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갔다.
- 농사 지을 때 참으로 건진국수를 많이 먹었다.

○ 윤씨 터전 / 야성김씨 터전

- 적벽가를 쓴 윤선도가 유배 왔던 곳. 일도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지금의 일도사는 약 30년 전 다시 만들어진 것. 현재는 종이 없다. 큰 스님 있을 때 관광 많이 와서 동네가 발전할 뻔 했지만 큰 스님 돌아가시고 관광객이 끊겼다.
- 윤씨 터전에 야성김씨가 터를 잡고 살게 됐는데 현재는 3집밖에 남지 않았다.

- 6.25전쟁 이후 다른 성씨 사람들도 동네에 모이기 시작했고, 야성김씨는 다른 데로 나가기도 했다.
- 야성김씨 위주로 윗동네 먼저 형성되었지만 지금은 아랫동네에 사람이 더 많다.
- 야성김씨 종택의 터가 좋다. 정치인, 교장선생님, 고시합격 등 대대손손 성공했다.
- 뒷 우물이 있는데 동네가 가물어도 절대 마르지 않고, 비가 와도 흙탕물이 되지 않고 물이 뵈얏다.
- 뒷 우물에서 용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다.

#### ○ 6.25 전쟁

- 뒷산에 인민군 시체가 많았다.
- 피난을 갔던 사람들은 집이 불타고 가진 것 없이 다시 돌아왔는데 안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군인들 도움을 받아 배불리 먹고 살더라.
- 전쟁 후 정부 지원으로 옥수수가루를 받아서 그걸로 떡을 찌먹고 조청도 만들어서 먹었다.

#### ○ 농사

- 마을 농경지가 논이 아니고 밭이어서 벼농사는 못하고 서숙(조)을 했다.

#### □ 창수면 오촌1리

##### ○ 농사

- 벼, 보리, 담배, 고추, 조 등 다양한 작물 농사지었음.
- 담배를 말릴 때 태양초처럼 깔아놓고 햇빛에 그냥 말렸다. 비 맞지 않도록 짚 엮은 것으로 덮어놓았다.
- 보리와 밀기울을 섞어 참으로 먹었다.
- 재령이씨의 농지에 소농으로 쌀, 보리농사를 짓다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담배농사를 하기 시작했다.
- 담뱃잎을 말릴 때 햇빛에 말리는 양건(陽乾, 별양 마를건) 방식을 사용했었다. 이후에는 토굴에 불 때서 말렸다. 초기에는 나무로 불을 땀고, 이후에는 갈탄, 그 이후에는 구공탄으로 불을 땀다. 현재는 전기건조기로 말리고 있다.
- 토굴 안 온도는 따로 측정할 수는 없었고 감으로 조절했다. 잎을 노랗게 말려야하는데 조절을 잘못하면 일부는 까맣게 말랐다.

##### ○ 호랑이 이야기

- 60년대에 한 집에서 마당에서 아기를 재우다가 호랑이가 애를 물어가버렸다.
- 한 처녀가 밤에 보리쌀을 때끼러(짚으러) 혼자 나갔다가 호랑이가 물고 가버렸다.
- 산 밑에 집에 방앗간이 있었는데, 방앗간 디딜방에 호랑이가 왔었다. 호랑이를 잡는다고 사람들이 엽총을 들고 나갔는데 선불리 공격해서 호랑이의 화만 돋구고 호랑이는 잡지 못하고 사람이 죽었다.

##### ○ 교통

- 옛날엔 산 위쪽으로 길이 있었다. 그 길로 영해까지 걸어서 3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 산에 호랑이와 여우가 있다.
- 병원가기 너무 멀어서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다. 아이를 집에서 낳다가 죽기도 했다.
- 영해시장에 우차(牛車)기사가 있어서 우차를 타고 다녔다. 영해시장까지 우차를 타고 편도 4시간반이 걸렸다.

#### ○ 음식

- 6.25 전쟁 이후 칩뿌리와 송피(소나무 껍질)를 뿔아서 떡 해 먹었다.
- 칩뿌리를 나무 딱매로 두드려 뿔아서 베로 감싸 물에 하룻밤 재워놓으면 칩가루가 빠져나와 밑에 하얗게 앙금이 가라앉아 있다. 위에 맑은 물은 부어서 버리고 앙금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칩수제비, 칩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 □ 병곡면 원황2리

##### ○ 농사, 시집살이, 음식

- 벼농사를 하고 나온 짚으로 가마니를 많이 짰다. 새끼도 꼬아서 팔았다.
- 새참으로 국수, 보리 많이 섞은 밥과 미역국, 삶은 감자
- 영해에 가서 밀을 뿔아서 밀가루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국수를 해먹었다.
- 밭이 많이 없고 나랏농사가 많았다.
- 분가 개념이 없어서 시어머니, 시동생과 다 함께 살았다.
- 보리농사도 많이해서 보리밥, 보리개떡, 보리국수 등 많이 해먹었다.
- 산쪽 과수원에는 배농사, 들에는 논농사. 지금은 보리농사는 잘 안함.
- 건너편 동네 밭에 돈을 내고 고구마를 캐와서 시장에 팔았다. 고구마 삶아서 머리에 이고 애 업고 영해시장에 가서 팔았다. 가져간 고구마는 다 팔아야 하니까 손해 보고도 팔았다.
- 마을에 산과 나무가 없어서 나무장작을 쓰지 못하고 보리 타작하고 남은 줄기로 불을 땀다.
- 생감자를 밭에서 캐와서 보자기에 싸서 장독 뚜껑에 넣고 물을 붓고 발로 밟아 껍질을 벗겼다. 대어 첫살 때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좋다고 따라하다가 장독 뚜껑을 깨먹기도 했다.
- 껍질 벗긴 생감자를 보리밥 지을 때 함께 넣어 삶아 먹었다.

##### ○ 가마니

- 포대가 나오기 전에는 가마니를 짜서 농협에 팔았다. 공판이라 판로 걱정은 없었다.
- 여자가 날실(III) 사이로 씨실을 밀면(→) 남자가 씨실을 아래로(↓) 내렸다.
- 가마니는 촘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다. 높은 등급은 곡식을 담고, 불합격(영긴거)도 과일을 담은 등 다른 용도로 사용
- 학교에 가기 위해 새벽부터 나가고, 돌아오면 새끼 꼬느라 바빴다.

##### ○ 6.25 전쟁

- 남편은 먼저 포항으로 피난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영덕 오천의 동굴로 피난갔다.

##### ○ 원황리의 옛 지명

- 대포: 큰 바닷가
- 항개: 큰 포구

## □ 다문화가정

### ○ 언어가 가장 힘들었다.

- 말하는 것 보다는 글쓰는 것이 더 편하다. 영어로 먼저 쓰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되니까.
- 영덕은 억양이 강해서 싸우는 것처럼 들린다.
- 한국에 처음 왔을 당시 다문화센터 같은 곳이 없었고, 언어강의는 없고 한복, 떡, 민요 등의 문화교육만 있었다.
- 시부모님이 안계셔서 남편 한사람과만 대화를 하다보니 다양한 표현을 듣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영어과외 일을 하다가 한국 학생과 서로 언어교류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글쓰기 대회와 말하기 대회에 많이 나가봤다.
-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서로 말이 안통해서 바디랭귀지로 소통했다.
- 필리핀 가족들과는 스카이프를 화상통화를 했다.
- 남편과 싸울 때 서로 소통이 안되니까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했다.
- 병원에 갔을 때 직원/간호사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해서 집에 와서 적어놨다. 잘 못 알아들으면 행동을 하면서 말해주니까 행동과 언어를 연결시켜서 기억했다.
- 노래와 드라마로 배우기도 했다. 드라마도 행동이 같이 나오니까 내용이 대충 이해가 갔다.
- 한국말이 익숙해지기까지 6개월~1년 정도 걸렸다.
- 한국에서 애를 키워야 되니까 애를 가르치기 위해 애보다 빨리 한국말을 배워야 했다.
-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말을 빨리 배우고 싶어서 남편에게 병원, 관공서에 가서 봐야하는 일들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했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남편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다.
- 막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목욕탕에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내가 한국말을 못하는 줄 알고 첫째한테 큰 소리로 화풀이를 하더라. 화가 나서 한국말 할 줄 안다고 또박또박 말하니까 당황하면서 꼬리 내리더라.
- 집과 직장에서 한국말을 계속 쓰다보니 필리핀 가족들과 전화할 때 자연스럽게 한국말이 섞여 나올 때가 있다.

### ○ 음식

- 김치와 된장찌개를 좋아했다.
- 홍어와 육회는 못먹겠더라. 다른 음식은 다 잘먹는다. 보신탕도 먹어봤다.
-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편이 좀 옛날 사람이어서 아침마다 국을 새로 끓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했다.

### ○ 한국에 들어올 때 이야기

-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없어서 사기 당한 줄 알았다. 남편 전화번호밖에 몰라서 공항 직원에게 전화를 부탁했더니, 남편은 부산 김해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시누이가 서울에 있어서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었다.

### ○ 문화 차이

- 한국은 하루 종일 계속 일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안부를 주고받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 한국에서는 필리핀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지만 문화와 언어가 달라 소통이 힘들었다.
-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 날이면 필리핀 날씨 같아서 고향이 그리워진다.
- 경희대 주최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발표 내용 : "이젠 알아요" 국이 시원하다는 표현, 건물에 4층이 없는 이유, 문지방을 밟으면 안된다.
- 같은 불교 문화지만 필리핀에서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문화가 있고, 한국은 다 먹은 밥그릇에 물을 부어 먹는 문화가 있다. (발우공양 유래)
- 필리핀은 아이부터 밥을 먹이는데, 한국은 어른이 먼저 손가락을 들어야 함. 친정엄마가 한국 왔을 때 애기 먼저 밥 주고 엄마가 나중에 먹으니까 남편이 버릇없다고 혼냈다.
- 필리핀에서는 토마토와 치킨이 밥 반찬인데, 한국에서는 간식과 야식으로 먹더라.
- 필리핀은 과일이 비싸서 잘 못 먹음.
- 짜장면을 처음 먹을 때 색깔이 까매서 무서웠다.
- 영해 문화반점에서 사천짜장을 보고 (면과 소스가 따로 나옴) 해물스파게티 같다고 생각해서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매웠다. 하지만 맛있었다.
- 포항 선린대학교에 토익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카페에 들어서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를 시켰는데 에스프레소가 너무 작아서 당황했다. 필리핀의 에스프레소는 작은 커피잔 정도는 된다.
- 필리핀의 커피스틱은 빨대처럼 구멍이 뚫려있지 않고 내부가 채워져있다. 신랑이 필리핀가서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스틱으로 빨대처럼 마시려고 하다가 구멍이 막혀있어서 당황했다. 필리핀 가족들은 그 광경을 보고 웃었다.
- 필리핀에서는 보통 생일날 필리핀 잡채, 스파게티 등 면류를 먹는다. 면처럼 길게 살길 바란다는 의미이다.
- 한국에 와서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소금인 줄 알았다.

### ○ 몇 년 전 영어를 가르쳤던 학생이 길거리에서 알아봤다.

- 서점과 카페에서 야성초 방과 후 교육에 나갔을 때 가르쳤던 학생들을 만났다. 10년 정도 지나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나를 알아보더라.
- 2009년에 통문장영어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을 며칠 전 장사 해수육장 편의점에서 만났다.
- 영어 강사로 계속 일하다가 현재는 군청 종합민원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 간담회 사진



다문화



도곡1리



부경2리



삼사리



신안리



연평2리



오촌1리



원황 2리



천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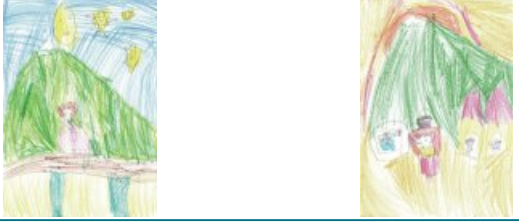




학구마을

## 이야기 제공 어르신

- 강구면 삼사리 김국자, 손음전, 김행자, 김두리, 박말순, 이상옥 외 3명
- 남정면 부경2리 서분난, 서귀순, 이봉택, 김분남
- 달산면 학구마을 강신오, 강태희, 김명규, 윤우섭, 김재중
- 병곡면 원황2리 성봉기, 신춘자, 김순조, 변정옥 외 13명
- 영덕읍 천전리 이종호, 최선악, 이월순, 배영일, 김재은
- 영해면 연평2리 방옥출, 박나미, 손순남, 고춘옥, 손분출, 김수옥, 손분남, 남수영, 추용애, 배한영, 김순예
- 지품면 신안리 주민 10명
- 창수면 오촌1리 정영도, 이수형, 이춘득, 남영주, 전영섭, 황영식 외 5명
- 축산면 도곡 1리 전덕적, 권분태, 이노미, 이경희, 이분자, 남수경, 남윤정 외 7명
- 다문화 가정 류희정

# 삽화그리기 활동 후기

권경안(9세)	문장을 읽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글을 여러 번 읽고 재미를 느꼈고 또 익숙한 지역 사투리가 있어 재미있어 하였고 처음 보는 농촌의 풍경을 설명하는 단어들의 설명을 들은 이후 이해가 되어 더 재미있게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길현이와 영오	
김다윤(6세)	늘 그림이 있는 책만 보다가 이야기만 있는 글을 아이에게 이해시키는 자체가 어렵긴 했어요. 그래도 책에 들어갈 그림이라고 옛 이야기와 매치시켜 즐겁게 그렸어요.
무릉산 전설	
김서현(5세)	
길현이와 영오	
김은유(5세)	
무릉산 전설	
김지현(7세)	
칼국수를 먹는 여름밤	

박선우(7세)	덕분에 아이도 엄마도 좋은 경험 했습니다. 옛날이야기를 듣고 그림그리는 처음 해본 활동인데 접근하는게 조금 어렵긴했지만, 동화책 설명해주고 그러다보니 어찌저찌 또 그리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옛날이야기라 접근하는것이... 왜 호랑이는 예쁜 처녀를 데리고 가서 동굴에 데리고 갔는지~ 의문이라고 하네요
호랑이 신랑	
박소윤(8세)	
달빛이 곱고 곱게	
박지인(6세)	
칼국수를 먹는 여름밤	
박형준 (유치원생)	저희는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가 저희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랑 그림그리기를 해보는데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더군요. 그러던중 이프로그램이 책을 읽고 연상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아이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것 같아서 신청하였습니다. 이번에 핵심은 아이가 제일 잘하는 자장면, 그리고 고향에 대한 단어를 알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자장면을 그리게 되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고, 저희아이도 좋아하는 바다에 직접 가서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그림을 완성해보았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보고싶어하는 문장에서는 아이와 함께 공감해보고, 형준이가 직접 엄마랑 떨어져 살게되면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보다가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신우현(8세)	
가마니 부자	
양아정(9세)	
달빛이 곱고 곱게	
양준혁(9세)	
가마니부자	
윤재성(9세)	
나무가 듣는 이야기	
이나윤(10세)	
세 친구	
이지예(9세)	뿌듯했다. 재밌었다. 기대된다.
나무가 듣는 이야기	

이지민(8세)	처음에는 어려워했는데 이야기를 직접읽어줄때보다 삽화를 그리니 아이가 더 많은상상을하며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지역의 이야기라 흥미로워했고 그 지역을 찾아가보고싶어했습니다.
호랑이신랑	
이지현(11세)	할머니 그리기 실력이 는 것 같다. 미술이 더 재밌어졌다. 내가 만든 책이 기대된다.
할머니의 노래	
임선미(10세)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즐거웠다.
우리 엄마는요	
임재민(10세)	영덕에서 만드는 옛이야기 모음집 <동거동락>에 삽화를 그릴 수 있어서 뿌듯했고, 옛날이야기도 접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노래	
최형석(13세)	
세 친구	

## 도움을 주신 분들

이야기 채록 \_ 관광해설사 최병인, 이정희, 오정민

동화작가 \_ 최미경

디자이너 \_ 박재은

참여기관 \_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군 가족센터, 영덕 주민여행사 맑음

# 영덕옛이야기모음집 동고동락

인쇄일 : 2022년 10월 7일

본 사업은 2022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출간물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및 지역문화진흥원에 있으며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99 / www.ydct.org  
lsy@ydct.org / 054) 730-588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군가족센터